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2026년 5월 1일 111호



칼럼 AI 시대, 농산업 생태계의 발전 조건
상록문학상 시부문 최우수 '흙에 대한 감사'
2026년 새해인사회
모교석학 농림생태계 탄소순환 글로벌 연구자
류영렬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026년 1학기 상록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동문탐방 (사)김상진기념사업회 회장 정근우(농화학84)
모교소개 안양(관악)수목원
상록, 상록의 아들
입학50년, 그 설렘과 격동의 나날을 돌아보며 조계현(농화학76)

커버스토리

Water Pipe, Life Line
대한민국 플라스틱합성수지관의 대표 선도기업

신우산업(주) 대표

김홍기


www.sunjin.com
여기,
선진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어떤 순간이든
마음과 마음, 선진이 잇습니다.
sunjin

회보 편집위원



발행인, 동창회장
박식순



위원장
이중용

위원



김훈동



신창근



강규석



윤철희



양태진



박영준



편집국장
이혜숙



간사
조민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2026년 5월 1일 111호

발행일 2026년 5월 1일
발행인 박식순
발행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75-1동 207호
Tel 02-880-4525, 882-8630
H.P 010-8823-8630
Fax 02-873-8632
E-mail snunong@snu.ac.kr

편집인 이중용
디자인·인쇄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Tel 02-880-5220
정가 10,000원

동창회 홈페이지 QR코드

차례

4 권두언 다시 5월이 왔습니다 동창회장 박식순(농교육77)
5 칼럼 | 농업·농촌·환경 AI 시대, 농산업 생태계의 발전 조건 김학진(농공88)
8 커버스토리 Water Pipe, Life Line 대한민국 플라스틱합성수지관의 대표 선도기업 김홍기(농학61)
13 상록, 상록의 아들 입학50년, 그 설렘과 격동의 나날을 돌아보며 조계현(농화학76)
16 제8회 상록문학상 시부문 최우수작 흙에 대한 감사 윤정로(식공73)
19 특집1 2026년 새해인사회
27 모교 석학을 찾아서 농림생태계 탄소순환 글로벌 연구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류영렬(조경97)
31 특집2 2026년 1학기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38 동문탐방 우리는 왜 아직 김상진을 기억하는가? (사)김상진기념사업회 회장 정근우(농화학84)
42 모교소개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개방
45 재학생 소식 2026년 새내기배움터

47 **모교 소식과 교수동정**
49 **농생대 동창회 소식**
50 **동문 동정**
52 **각 학과 동문회 소식 및 동문 경조사**
53 **찬조금, 기부금, 회비 납입내역**

동창회의 발자취(2025.12.1~2026.3.31.)

2025. 12.17. 상록문화재단 이사 선정 위원회 간담회
12.23. 2026년 새해인사회 준비를 위한 76학번 3차 회의

2026. 1. 1. 동창회보 제110호 발행
1. 7. 2026년 새해인사회(76학번 주관)
1.19. 상록문화재단 회계감사
1.19 제30회 상록문화재단 이사회
2. 4. 2026년 제1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회의
2.24. 상록문화재단 1학기 장학금 수여식
2.27.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1학번 1차 회의
3. 1. 2026년 전기 신입회원 등재
3.10. 2026년 제1회 포상위원회 회의
3.27.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1학번 2차 회의

알리는 말씀

농생대동창회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동문들께 농생대동창회 근조기를 실비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880-4525, 문자 010-8823-86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회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입금 시 '홍길동 농학 83'식으로 입금 바랍니다.

*동창회보 책자는 동창회 재정 여건상 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하는바,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계좌번호

농협 301-0068-1319-9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입금 시(홍길동 농학 83)

*기부하신 기금은 장학금 지급, 동창회보 발간사업 등에 쓰입니다.

다시 5월이 왔습니다



박식순(농교육77)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2026년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올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소원했던 "붉은 말"의 기세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뜨거운 희망과 힘이 가득하시길 먼저 기원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마주한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중동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첨단 드론과 패트리엇 미사일이 오가는 파괴적인 소식들로 꽃 피는 봄 대신 화염 소식으로 뉴스를 채운 날들이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으로 인한 석유 공급망의 불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급등한 달러 환율은 우리 실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수 5,000을 넘어 7,000을 향하던 주식시장도 전쟁 여파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감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일조차 예측하기 힘든 혼돈의 시국이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문 여러분 모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세상이 격변하고 경제가 흔들릴지라도, 수십 년을 이어온 변치 않는 상록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오는 5월 9일 상록의 날에 많은 동문께서 참석하시어 서로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고 안부도 묻고 힘내라고 선후배 간 격려도 해주며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고 내일을 준비할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문 여러분, 부디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늘 평안과 건강을 우선으로 삼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건승하여 밝은 모습으로 반갑게 5월 상록의 날에 관악 캠퍼스에서 뵙겠습니다.

2026년 5월
동창회장 박식순 드림

2026년 91학번 주관 상록의 날 알림

일시 2026년 5월 9일 (토) 10:00~14:20
장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 101호 대강당
내용 1부 동창회 정기총회, 상록인대상 시상식
2부 **91학번 주관 입학 35주년 기념 행사**
3부 강당: **퀴즈 게임 '도전, 골드바를 찾아라'**
야외 행사: **달고나 게임**
오찬 및 기념품, 경품 제공
문의 및 접수 02-880-4525 / 010-8823-8630
접수기한 ~5월 5일 (화)

참가접수 QR

★ 자세한 것은 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장소 및 인원 한정으로 **빠른 접수** 요망

AI 시대, 농산업 생태계의 발전 조건



김학진(농공88)
모교 스마트시스템과학과 교수
BK21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원장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은 제조, 의료,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네트워크와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농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드론으로 촬영한 작물 재배 영상과 IoT 센서 및 분석 장비로 측정한 토양 비옥도, 온·습도 등의 환경 정보, 작물 생육 상태와 수확량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작물별로 적절한 비료, 농약, 관수 관리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과 시기별로 기후, 토양, 강수량 등이 비정형적이고 불균일한 농업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보다 영농 솔루션 개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농기계 기업들은 AI 기반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자율주행 농기계와 로봇화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운영체계와 플랫폼을 개발해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자재 기업의 영농 솔루션을 탑재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최근 자체 AI 솔루션, 위성 측위 시스템, 드론 등 높은 수준의 인프라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 영농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농업기술의 상황에서 국내 농업과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AI 기술 기반 데이터 주도 농업(Data-Driven Agriculture)이 발전하기 위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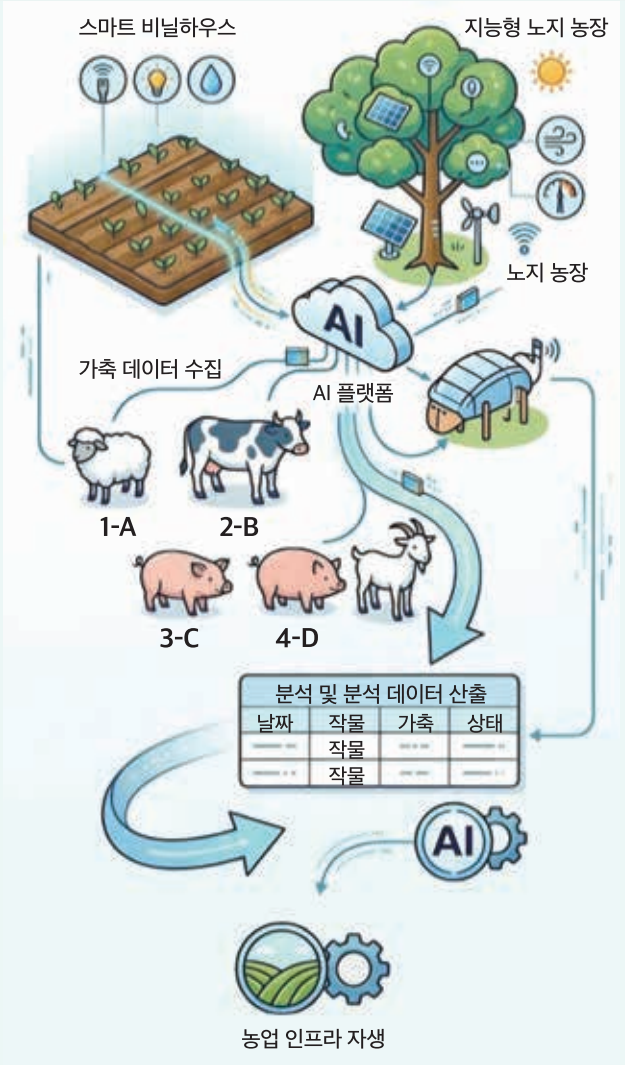
첫째, 지속적인 영농 데이터 구축 및 정부 차원 연구개발 실증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개발한 스마트 영농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기술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노지 스마트팜 단지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내 영농 조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

> 구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 노지 스마트팜 단지를
> 개발 기술의 환류 시스템으로 활용해
> 기술 검증과 안정화를 위한
> 시험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면
>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 농업 실현을 위해 정부 연구기관,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단계적 발전 정책과 사업화를 추진하여 해외 선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아쉽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정책은 스마트농업 기술의 조기 확산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글로벌 해외 선진 기업의 상용 디지털 농업 기술은 국내 농가 현장에 쉽게 도입되는 반면, 다양한 국내 연구개발 기술은 현장에서 오히려 외면당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고 국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험과 지속적인 개선 과정이 필요하다. 구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노지 스마트팜 단지를 개발 기술의



환류 시스템으로 활용해 기술 검증과 안정화를 위한 시험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스마트농업 기술 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정부 주도로 다양한 생산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파종, 생산, 유통 등 전주기 단계에서 요소 기술을 실험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은 생산 기술뿐 아니라 농자재 혁신, 소비·유통 영향 분석, 생산량 예측을 통한 수급 조절 등 경제성과 경영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역시 2016년부터 데이터 기반 농업 기술 구축을 위해 현장 실증과 데이터 수집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랙터와 드론에 센서를 부착해 경운, 파종, 농약 살포 등 작업 정보를 위치별로 수집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후이성의 경우 데이터 수집 장치를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국가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농작업 데이터 구축을 수년간 추진해 왔다.

네덜란드의 온실 의사결정 플랫폼 '렛츠그로우(Lets Grow)'가 온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도 수년간 시설원예 농가의 운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전 세계 설치 장비에서 데이터를 축적해 환경관리 성능을 개선해 온 결과이다. 데이터 주도 농업 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 AI 기반 디지털 농업이 원활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농기계가 파종, 경운, 방제, 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성 위치정보의 오차를 주변 고정 기지국의 보정 신호를 적용하여 정밀도를 2cm 이내로 줄일 수 있는 정밀 측위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 구획과 경계 정보가 구축되어야 농지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율 농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드론 자동 비행을 위한 장애물 대응 기술, 토양 비옥도와 작물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농업용 센서 개발 등도 필수적이다. AI 기반 스마트농업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함께 발전해야 실현될 수 있다.

> AI 기반 스마트농업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함께 발전해야 실현될 수 있다.

셋째, AI 기반 스마트농업은 생산 단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출하·유통·소비까지 연결되는 가치사슬의 발전을 통해 농식품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원산지 정보 모니터링, 농산물 이력 관리, 식품 안전 기술 등 각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전 주기 농업 데이터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비료와 농약, 물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 생산 기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요구되는 품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이라는 개념처럼 생산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데이터와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또한 유통기업을 통해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생산에 반영하는 시장 주도 농업(Market-Driven Agriculture)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 역시 필요하다.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
이라는 개념처럼
생산 · 유통 · 소비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전 주기 농업 데이터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24년 데이터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농업 확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농업·농촌 AI 대전환 전략'을 통해 농업 인력 문제 해결, 민관 공동출자 국가 농업 AI 플랫폼 구축, 노지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 AI 기반 유통 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부 실행 단계에서 산학연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실증 기반의 현장 적용 기술을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 소비 단계까지 아우르는 산업 가치 측면에서 개발해야 하며 농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AI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이 산업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국가가 농업 AI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농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산업으로 성장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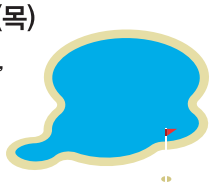
2026년

제2회

상록 친선 골프대회



※ 시상식 내용 및 세부 사항은
추후 홈피 공지 예정. 신청팀 개별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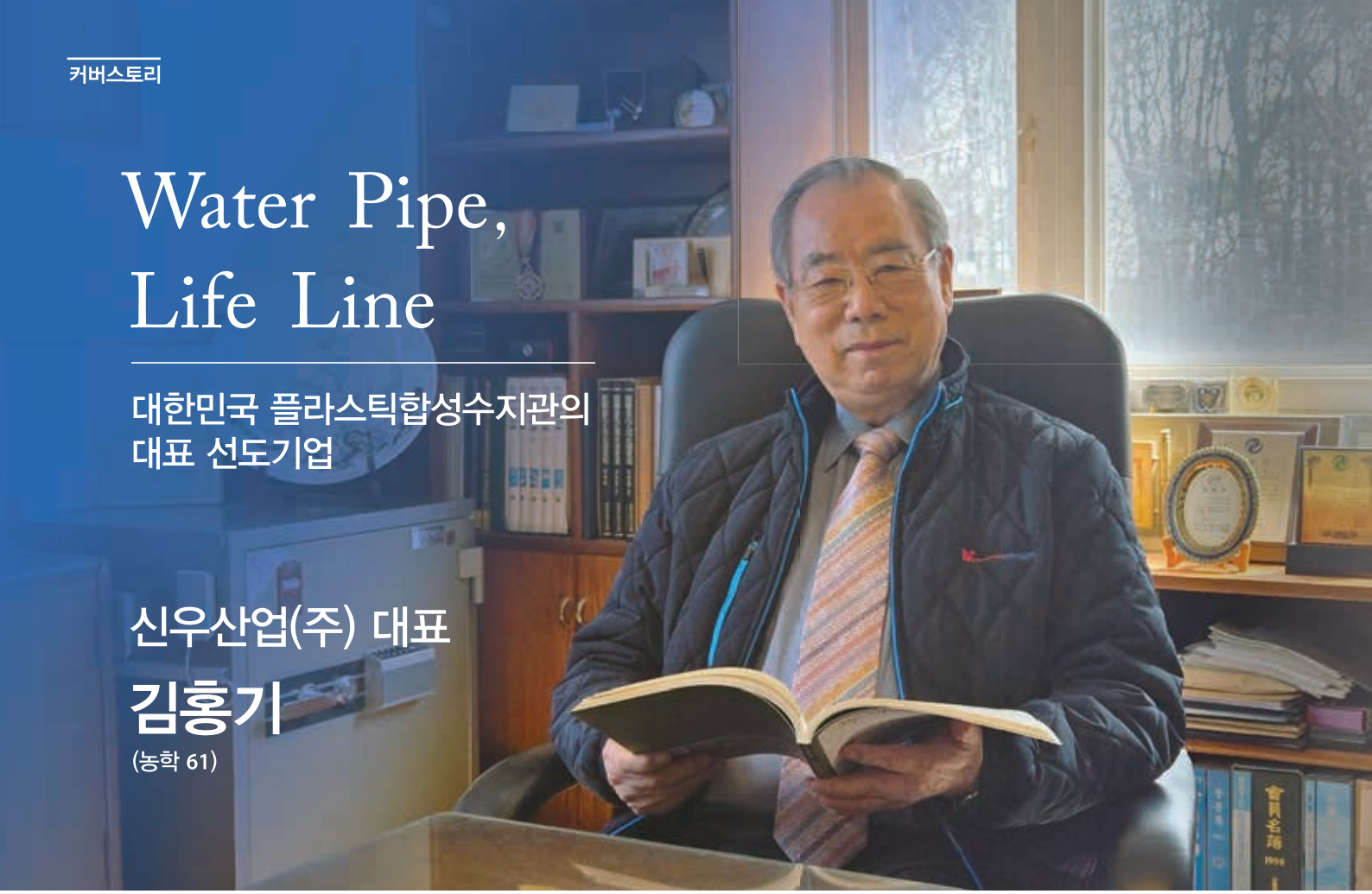


일시	**2026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접수 등록, 10시 30분 오찬 후 라운딩 예정
장소	안성 베네스트 CC
참가 팀	학과별 동창회장 추천 1팀 이상, 선착순 동아리팀 등 총 25개 팀 (학과 팀 우선입니다.)
내용	홀 라운딩 & 오찬, 석식, 시상식, 기념품
참가비용	추후 홈피 확정 공지(30~35만 원)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접수 후 입금 **신청 링크는 동창회 홈피 8월 3일 오픈**
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 ~ 8월 14일(2주간)
입금 계좌	농협 301-0248-8582-91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문의	동창회 02-880-4525, 010-8823-8630

Water Pipe, Life Line

대한민국 플라스틱합성수지관의 대표 선도기업

신우산업(주) 대표
김홍기
(농학 61)



집무실에서

농학을 전공하셨는데 상하수도관 제조업을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설 상록수 주인공인 박동혁과 같은 삶을 꿈꾸고 농대에 진학하였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어렴풋이 세상 현실을 알게 되어 진로를 변경하여 가업(家業)을 잇기로 결심한 후 1967년 ROTC 육군소위로 전역하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의 기초를 배우게 되었고 1968년 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PVC라는 신소재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난방, 취사 등에 거의 연탄(19공탄)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연탄가스로 인해 인명은 물론 건축자재로 쓰이고 있던 함석까지 삭게 하여 사회문제가 되던 때였습니다.

이에 녹슬지 않고 연탄가스에도 부식되지 않으며 반영구적인 수명을 지니는 신소재와 관련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있던 즈음, 갓 결혼한 아내가 모아둔 곗돈을 내어주면서 직원들의 월급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하라 하기에 그러기로 약속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약속을 58년간 지켜오고 있습니다.

신우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방계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개와 그동안의 경영 성과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기업인 신우산업(주) 외에 일우산업(주), 유니켐(주), 에스아이피산업(주) 등이 있습니다. 신우산업(주)은 주로 PVC 원료로 토목자재인 PVC 상하수도관과 통신관 및 건축자재들을 생산하고, 일우산업(주)은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대구경인 PE 상하수도관의 토목자재와 전기설비자재인 가요전선관과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전선보호관을 생산하고 있고, 유니켐(주)은 가교폴리에틸렌으로 전선이음부의 누전을 방지하는 열수축튜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아이피산업(주)은 6·25전쟁 후 정읍에 알루미늄 공장을 세우기로 하였던 아버님과의 약속을 이루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PVC 및 PE원료를 사용하여 한국전력공사용 전선관, 토목자재인 상하수도관과 건축자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국내에 막 시작되던 집단 양계시설의 닭모이통을, 그리고 새마을운동사업의 상징과 같은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조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창립57주년 기념, 직원들과 함께(김포 공장)

에 꼭 필요한 삭지 않고 녹이 나지 않는 물받이와 홈통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농어촌 간이 상수도 보급에 필요한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을 KS를 획득하여 공급하며 새마을사업과 국가 기간사업에 동참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한 대기업들의 PVC 통신선 보호관 사업에 공장 설비 시설을 개조하여 참여하기 시작하고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하여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여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상수도확충사업과 산업화로 오염되고 있는 토양을 지키기 위한 하수정비사업에 동참하여 합성수지 플라스틱 파이프를 보급하여 환경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양수기용 PVC 나선호스는, 일본 강점기때 우리나라 농토를 수탈하였던 일본의 동양척식회사 관련 인사의 손자인 가네오시로의 기술로 국내에서 독점 생산되던 나선관 생산을 우리 회사가 독자 기술로 국내 특허를 획득하여 생산·보급하게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대구경 PE관의 특허기술도 국내 특허를 획득하여 생산하는 쾌거를 이루어 PE 대구경 하수관을 생산·보급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민족적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양수기용 PVC 나선호스,
⋮
독자 기술로 국내 특허를
획득하여 생산·보급

신우산업이 1968년 설립되어 올해로 59년이 되는군요. 그동안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기였을 때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PVC파이프는 1963년도에 당시 상공부차관을 지낸 배응도라는 분이 일본의 세키스이화학공업의 기술을 도입하여 서울 미아리, 쌍문동에 비달산업을 설립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여 한양화학, 진양화학, 럭키화학, 내쇼날프라스틱이 외국에서 트윈(twin) 압출기를 도입하여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18평 임대공장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대도공작소(서울 영등포)에서 압출기 실린더(cylinder)는 박격포의 포신으로, 스크루(screw)는 자동차의 차축으로 가공하였고 변속장비로 중장비 미션(mischen)을 개조하여 싱글(single) 압출기를 만들어 중소기업 최초로 PVC 파이프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PVC 수지는 열에 약하여 열안정제를 배합하여 압출기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 계통에 문외한이었던지라 배합부터 기계구조까지 파악해야 했으며 제품생산의 원료배합비는 당시에는 기밀이었기에 배합사들의 횡포가 심하여 부산까지 내려가 배워오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특허를 침해하면 인신을 구속하던 때였는데 본인이 생산하는 닭모이통에 대한 특허권 침해 문제로 매일 형사들이 들러 신병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과 오봉국



신우산업 1호 압출기 앞에서
(왼쪽은 신형, 오른쪽은 구형)

교수님의 '닭은 색맹이고 닭의 항문을 부리로 쪼는 것은 벌레인 줄 알고 쫀다.'는 확인서를 받아 그 특허권리가 잘못되었다는 해명을 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일은 항상 기억하며 교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 부족한 원자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슈퍼믹서(super-mixer)를 자체 개발하여 부족한 원자재에 충진제를 섞어 고객들에게 부족한 제품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혹한에 서울 북부 일원에서 수도관이 동파되었을 때 서울시는 그 책임을 PVC관이라고 오판하여 사용 중지령을 내려 제품 판로에 문제가 생겼는데, 대기업만이 납품하던 통신선 보호관 시장에 부분 훈육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통신관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제품판매 활로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후 트윈 스크루 압출기(twin-screw extruder)를 개발하여 제품품질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소기업들에게도 공개 보급하여 중소업계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향상된 중소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서로의 생존 문제가 걸렸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열화를 주선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
정직이
최대의 경쟁력이라 믿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당당하게 직면하여 극복

생산시설의 국내개발로 품질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신제품 개발로 위기를 탈출하였지만 때로는 다른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때로는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때로는 직원들과 힘을 합쳐 배수진을 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는 고등학교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정직이 최대의 경쟁력이라 믿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직면하여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제 와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우산업을 대표할 만한 제품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PVC 상수도관, 하수관의 품질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수도관의 경우에는 관로 설치 공사 중 잘못된 결구 방법으로 인해 관과 관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부분에 2중의 고무링을 설치하여 그중 1개의 고무링은 수팽창 고무링으로 구성하여 누수와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는 "누수 제로(ZERO)" 파이프가 대표 생산제품이고, 하수관의 경우에는 사용 시 악취유입을 방지하는 오수받이가 있는데 오물



제품전시관에서



누수제로 파이프

출구에 인버터 경사를 주어 오물을 신속히 배출시키는 우리나라 주택 배수구조에 맞는 "한국형 오수받이"가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근래에는 하수관 관로에 오물이 퇴적되어 도시의 악취를 유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PVC 난형(계란형) 파이프"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국내외에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우산업의 경영 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세가 경영후계자로 참여하여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소재개발과 기능성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공정에 스마트자동화시스템과 AI기술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 개발하여 공급하였지만 우리나라 농업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스마트 농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농약으로 오염된 관개수로를 매립하여 농토 확장과 농업용수의 생산원가를 낮추며 농약과 오물 등에 오염되지 않는 농업용수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농업용수관 개발과 도시의 생활하수 악취 유발을 방지하는 친환경제품인 난형관 개발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사회적 책무도 게을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상록수의 주인공처럼 어디서든지 국가를 위하여 보람있는 일이 되길 바라며 주어진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마음으로 가정과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과 우리 업계의 동업자들을 위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한말 미국의 선교사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자유와 평등의 서광을 비추어 주셨고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6·25동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힘을 다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역사(役事)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통하여 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우리나라를 정의롭게 세우는 청년들이 되도록 헌신하는 군선교 사업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말씀에 힘입어 지금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농업용수관 개발과 도시의 생활하수 악취 유발을 방지하는 친환경제품인 난형관 개발에 힘을 기울일 것"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있을까요?

동기생인 고(故) 염도의 군이 선물한 『열등감에 대하여』라는 단행본과 이어령 교수의 『지성의 오솔길』을 읽은 후에 나 자신과 세상을 폭넓게 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염도의 군이 새벽마다 연습림에서 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시작하던 근면함과 성실함을 옆에서 보고 배우려 노력하였습니다.



2세경영인, 장남 김주환 대표와 함께



부인 정혜자 님과 김홍기 동문(앞줄 중앙)

요즘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창업하려 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상식을 쌓아두고, 특히 학창시절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ROTC에 지원하여 리더십을 갖추고 경영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워두면 사업의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사업가로도 개인으로서도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꼭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고마운 이들에 대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대구경 PVC관을 개발·보급하여 농업 현대화에 보탬이 되어 황무지를 개간하겠다던 젊은 날의 꿈의 일부라도 이루고 싶고, 위기마다 도움을 주신 분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땀 흘리며 본인을 믿고 따라준 모든 직원들, 업계를 이끌어온 동업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인 아내에게 끝없는 감사와 사랑을 보내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손 모두 전능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까지 쌓아온 우리 기업의 신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보람 있는 일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요 약력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
- 한국 PVC관 KS표시 허가업체 협의회장
-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 초대이사장
- 한국PVC하수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이사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감사, 현재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설립 3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 (2025. 3.)

주요 수상

- 고려대학교 총장상
- 공업표준화부문 대통령 표창
- 특허기술상 수상 / 발명의 날 행사
- 환경부 장관 표창/세계 물의 날 행사
- 조달청장 표창
- 산업자원부 장관상
- 우수장수기업 수상/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 국무총리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2023. 5. 16.)

입학 50년, 그 설렘과 격동의 나날을 돌아보며 (76학번 잔상)



조계현 76학번
전체 대표(농화학76)

지나온 굽이굽이마다 서린 추억을 다시 소환하는 일은 녹록지 않음을 이 글을 쓰면서 새삼 느꼈다. 반세기 전의 기억은 희미해진 기록들 사이로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의 시선에 따라 다른 색채로 덧칠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50년의 세월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닐 터, 그 시절 우리가 공유했던 설렘과 고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개인적 경험과 농화학과 이벤트 중심으로 기억의 편린을 꺼내 보았다.

합격증을 손에 쥐고 도착한 대학 정문에는 중무장한 탱크와 총을 든 군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1976년 3월 초 탱크와 총구로 맞이한 낯선 입학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합격증을 손에 쥐고 서울에서 수원행 전철을 타고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대학 정문에는 교수님도 선배님도 아닌 중무장한 탱크와 총을 든 군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유신체제의 엄혹함을 채 이해하지 못했던 신입생에게 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고등학교 시절 꿈꾸어 왔던 낭만적인 캠퍼스, 도서관의 정적과 사랑, 학구열의 공간은 찾기가 힘들었다. 기숙사 방을 배정받고, 4학년 선배와 낯선 새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반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오싹한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대학생활은 교내 곳곳에 붙어있던 동아리 신입회원 모집 포스터로 시작되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나는 농구부에 가입했다. 또 이념과 조직 관련 동아리에도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바쁜 대학생활이 펼쳐졌다. 신입생 환영회는 커다란 빨간 대야에 막걸리 몇 통을 붓고 바가지로 돌려 마시는 것이었다. 술기운이 오르면 선배들 입에서는 서슬 퍼런 시국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궁극에는 1975년도 4월 시위 도중 자결하신 김상진 선배님의 숭고한 정신과 유신체제 타도를 향한 외침으로 이어졌다. 4월이면 한 달간 휴강과 귀가 조처가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도 청춘의 특권, 대학 생활의 꽃인 미팅은 계속 이어졌으니, 서울과 수원 마로니에 딸기밭을 누비며 나누었던 그 달콤한 기억은 이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1학년 1학기 끝나고 고향가는 길

기말고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향하던 여름날, 한 친구는 자전거로 1주일 동안 삼천포 집까지 가겠다며 국토 장정에 나섰고, 나는 용산에서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고 8시간 반 걸려 새벽쯤, 이리역에 도착했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1학년 2학기

10월 대학 축제 기간에는 친구와 함께 2박 3일 설악산 등반에 나섰다.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해 용대리에 이르는 길, 그 당시 군대 다녀오신 선배들의 이야기 중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해서 못 살겠다'를 경유하

한 달간의 숙성을 거쳐 완성된 포도주의 숙성 정도에 따라 칭찬과 꾸중이 오갔지만 그 술맛 속에 녹아있던 뜨거운 의리와 추억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즐거움으로 남아 있다.



농화학76학번

는 1차선 외도로의 교행으로 용대리에 내려서 6km의 백담사 가는 길은 초저녁의 으스름 달빛에 더욱 창연히 아름다웠다. 백담사를 지나서 초가로 된 민박집에 하룻밤을 머물고, 이른 새벽 어느 스님과 함께 오르는 산행, 어느 덧 쌍폭에서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위에서 "그대들 시원하신가?"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올려다보니, 아까 그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2학년 1학기 세븐파이브, 무전여행

2학년이 되어 농화학과로 진학한 후, 시국에 예민하게 1학기를 보내며 새로운 여정을 꿈꿨다. 1977년 7월 7일 오후 7시, 나는 동기 곽*진과 함께 이른바 '세븐파이브작전(77777)'이라 이름 붙인 한 달간의 무전여행을 감행했다. 용산을 출발해 '무주-전주-여수-거문도-목포-제주-부산-용산'을 잇는 장거리 여행이었다. 여수 오동도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소주를 마시다가 사소한 비용 문제로 큰 다툼이 벌어져 각자 집으로 가자며 등을 돌리고 여인숙에서 밤을 지새운 뒤, 이튿날 아침 서로 사과하며 화해했던 일은 친한 사이일수록 사소한 단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정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

2학년 2학기 첫 학과 여행, 이리역 폭발사고, 홈커밍데이

1977년 9월 24일, 제1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우리 대학의 샌드페블즈가 〈나 어떡해〉로 대상을 수상했다. 그 멤버 중 퍼스트기타와 베이스기타가 우리 학과 동기여서 미팅자리에서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기억이 새롭다. 첫 학과 여행은 내장산과 백양사로의 1박2일 코스로 완행열차에서는 담배를 피우며 마이티 카드게임 승부에 몰입하던 친구들이 내장사를 들러 백양사로 넘어가는 험한 고갯길에서는 힘든 서로를 격려하며 우정이 더 단단해졌다.

11월 11일, 이리역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가족의 안위를 확인하려고 달려간 현장은 지름 40미터, 깊이 15여 미터의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 참혹했고, 가수 하춘화 공연이 열리던 삼남극장의 지붕은 내려앉아 있었고 가옥 수백 채가 폭삭 주저앉은 처참한 광경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포도향 가득한 9월이 오면, 동아리 회원들은 기숙사 뒷마당에 커다란 장독을 묻고 포도주를 담갔다. 설탕과 함께 재운 포도가 발효되기를 기다렸다가, 11월 하순경 즙을 짜서 다시 한 달간의 숙성을 거쳐 완성된 포도주는 12월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 때 선배님들에게 대접하는 귀한 선물이 되었다. 숙성 정도에 따라 칭찬과 꾸중이 오갔지만 그 술맛 속에 녹아있던 뜨거운 의리와 추억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즐거움으로 남아 있다.

3학년 교내 시위와 ROTC의 자괴감

3학년 1학기 학과 여행은 3박4일의 남해안 일주였다. 역시 대학생의 패기답게 뽀얀 담배 연기와 마이티로 열차 칸의 열기를 데우더니 대학 교가가 된 〈나 어떡해〉의 레코더 노랫소리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며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진해에 내려 군항제 벚꽃을 보고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부양정(호버크라프트) '엔젤호'를 타고 여수로 향했다. 그 와중에 여승무원과 눈이 맞아 훗날 그 여승무원

우리가 누볐던 서둔동 교정의 흙내음과
마로니에 딸기밭의 달콤한 향내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과 머리에서 시들지 않는 청춘의 증거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이 학교를 방문하던 날, 우린 모두 축제의 도가니에 빠졌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다. 그녀도 그 어딘가에서 잘살고 있으리라.

평범히 흘러가는 것 같았던 그때 교내 시위가 발생했다. 전투경찰이 스크럼을 짠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했다. 당시 ROTC 1년 차였던 나는 그 대열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전체주의적 통제가 인간의 심리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역사 속 수많은 이들이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 그때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4학년 졸업여행

4학년은 글자만큼이나 삶의 무게가 달랐다. 졸업논문과 사회진출 준비가 한꺼번에 진행되었다. 대학 생활의 꽃인 졸업 여행지는 제주도였다. 나는 미리 이리로 내려가 달걀 50개를 삶아 열차에 합류하고 완행열차 안에서 동기들과 나누었다. 한라산 백록담에 오르니 분화구 안에는 올챙이가 가득하고 기슭에는 아직 녹지 않는 하얀 눈이 남아 있었다. 그 눈을 밟으려고 올라가던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4학년 2학기 이별, 그리고 10·26

가슴 아픈 이별도 있었다. ROTC 동기이자 항상 짝꿍이었던 정*일이 수요일 오후, ROTC 교육 중 미식축구 경기하러 간다며 웃으며 악수하고 나갔는데 경기 도중 상대 선수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쓰러져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함께 졸업을 앞두고 떠나보낸 그를 향한 그리움은 5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아픔의 흉터로 남았다. 그렇게 우리의 대학 생활은 역사의 큰 아픔인 '10·26 사태'와 '12·12 사태'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멀어졌다.

맺음말: 50년의 세월을 이어준 우리의 이름으로

돌이켜 보면 76학번 동기들과 함께했던 그 4년은 설렘과 두려움, 뜨거운 우정과 시린 아픔이 켜켜이 쌓인 우리 생애 가장 눈부신 날이었다. 내가 오늘 거명한 이름들은 단순히 나만의 친구이기 이전에, 그 엄혹했던 시절을 함께 버티고 어깨를 나누었던 우리 76학번의 또 다른 얼굴들이다.

동창회보의 지면을 빌려 꺼내 놓은 저 사소한 기억들이 이 글을 읽는 동기 각자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더 크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시 깨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누볐던 서둔동 교정의 흙내음과 마로니에 딸기밭의 달콤한 향내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과 머리에서 시들지 않는 청춘의 증거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치열했던 시대를 함께 건너와 이제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마주한 반가운 동기들,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삶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우리가 공유했던 이 50년의 세월이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단단한 밧줄이 되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 76학번 모든 동기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한다.

"너의 삶을 칭찬해, 친구들. 화이팅!!!"



흙에 대한 감사



윤정로(식품공학73)

전정하다 잘린 가지 주우려다 깨달았네.
그동안 나
그대에게 내 몸 굽혀 감사한 적 없었음을

소스라치게 놀랐네.
그대가 그 많은 소산물을 내게 주었건만
단 한 번도 생색낸 적 없었음에

미안해 어찌할 바 몰랐네.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와 배설물을
그대가 말없이 받아주었음에

까맣게 몰랐었네.
그대가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다는 것을

고마움에 눈물이 났네.
그동안 내가 꿋꿋이 설 수 있었음은
그대가 기꺼이 받침이 되어 주었기 때문임에

아, 나는 바보였네.
그대가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는 존재였다고 잘못 알았기에

이제야 알았네.
그대의 은미한 음성은,
몸을 낮추고 귀 기울여야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코끝이 찡해졌네.
겨울 끝자락, 바람 속에 실려 오는 봄의 향기가
바로 그대의 체취였음에

이제 온몸으로 전해 오네.
그대가 내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임이

문득 슬퍼졌네.
내가 죽기까지 노력해도 그대를 닮을 수 없음에

하지만 위로를 받았네.
내가 죽으면 비로소 그대를 닮아갈 수 있음에

심사위원장 심사평



김훈동(농학63) 심사위원장

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사물들의 모습과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게 해준다. 좋은 시는 이런 삶 속에 얽매인 이들에게 사물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일깨운다. 시인의 감성과 필력에서 시는 피어난다. 응모작을 대상으로 진행한 블라인드(blind) 심사에서 윤정로의 '흙에 대한 감사'를 최우수작으로 뽑았다. 일상의 순환 속에서 발견한 이미지들을 연(聯)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묘사해 전체 흐름이 좋았다. 사물을 관찰하고 거기에 덧입히는 상상력이 돋보였다. "아, 나는 바보였네/그대가 말할 줄도/들을 줄도 모르는 존재였다고 잘못 알았기에" 라며 "이제 온몸으로 전해 오네/그대가 내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임을" 화자의 시선이 일상에서 얻은 소재를 담담하게 잘 그려냈다. 시인은 아름다운 언어의 마술사라 하지 않는가. 언어를 다루는 솜씨가 안정되고 사물을 무리 없이 투영하여 공감을 주기에 충분한 시다.

일부 응모한 시들은 너무 긴 감이 있다. 시의 생명은 응축과 이미지다. 응축미를 살리고 비유와 은유의 표현기법으로 사물의 이미지를 환기해내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보다 있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는 시가 좋은 시다. 시는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앞으로 간결한 언어, 신선한 이미지, 조밀한 구성으로 시의 지평을 열어갈 것을 기대한다.

2026년 제9회 상록문학상 공모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동창회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9회 상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공모내용 창작 시, 창작 수필(작품 수 제한 없음)
(분량 A4지 12pt 2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하)

참가대상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대학원 동문과 재학생(휴학생 포함), 교직원
*단, 기존 1~8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는 제외

출품소재 나에게 소중한 것

출품기한 10월 12일
(작품 제출 시 성명, 소속, 휴대폰 연락처 기재 必)

작품제출 snunong7@naver.com
*메일 제목을 "상록문학상 공모–홍길동"으로 명시 요망

수상자 발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농생대동창회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 연락



상록문학상 시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윤정로 동문(우)과 부인

상록문학상 시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소감

많은 심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사실 시를 좋아하지만 써본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시가 맞는 것인지,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상록문학상 공모전을 알게 되어 좀 평가를 받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서 출품했는데 영광스럽게도 최우수상을 주셔서 감개무량하고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시를 쓰는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시를 쓰게 됐는지 잠깐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지금 퇴직을 하고 시골에서 텃밭 농사를 짓는데 과실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그 과실을 다 딴 다음에 이맘때가 되면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가지치기가 끝난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가지가 많이 떨어졌길래 그것을 치우려 가지를 주우려고 하는 순간에 제 몸이 구부러지면서 마치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내가 이 흙으로부터 많은 부산물을 얻었는데 여태까지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한 번쯤은 고개 숙여서 고맙다고 했을 만도 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흙에 대해서 어떤 고마운 것을 갖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떠오르는데 떠오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봤더니 흙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를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이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면서도 생색내는 적도 없고 또 제가 힘들어서 짜증 낼 때 말없이 받아주기도 하고, 또 저를 위해서 울어주기도 했겠죠. 그런 것을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러한 것을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시를 쓰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떻게 보면 흙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을 썼지만 어머니에 대한 감사, 또는 아내에 대한 감사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를 쓰면서 글이 막혔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고 또 아내를 떠올리면 거기에서 새로운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영감을 준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제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 시를 바칩니다.

2026년 76학번 주관 새해인사회



76학번 전체 사진

1월 7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입학 50주년을 기념하는 76학번 주관의 새해인사회가 있었다. 10시 반, 동창회 이사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11시부터 시작된 새해인사회는 이규봉, 농생물학과 76학번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식순 동창회장의 신년사를 시작하여 모교 강병철 학장의 축사, 조계현 76학번 전체 대표의 인사말과 원로 대표, 정하우(농공59)명예교수의 덕담에 이어서 재학생들을 대표하는 각 학과 대표들로 이루어진 학생회의 선배들에 대한 세배와 동문 간의 세배가 이어졌다. 후배들의 세배 후 76학번으로 새해인사회에 참가한 동문 소개와 함께 76학번 전체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76학번들이 모은 장학금을 조계현 전체대표가 동창회 산하 상록문화재단에 전달하였다. 이어서 박식순 동창회장(상록문화재단 이사장)은 학생회장에게 학생회 격려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동창회와 모교, 재단의 주요 인사들에 의한 새해 떡 나누기 행사가 있었으며 이후 식전 공연으로 서울대 국악과 학생들의 판소리, 가야금, 해금의 흥겨운 공연이 있었다. 이후 이현수(9대 동창회장) 고문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류관희(10대 동창회장) 고문, 서병륜 명예회장의 건배사와

1월 7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입학 50주년을 기념하는 76학번 주관의 새해인사회가, 동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우렁찬 함성 속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동기, 선후배 간의 즐거운 대화 속에 진행되었다.



박식순동창회장, 조계현 76학번 대표, 강병철 학장



상임부회장 대표(이순형, 박숙자, 김상석)



이현수 고문, 류관희 고문, 서병륜 명예회장

조계현 76학번 전체 대표의 건배사가 이어졌으며 동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우렁찬 함성 속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동기, 선후배 간의 즐거운 대화 속에 오찬이 진행되었다.

오찬 중에 76학번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되는 1977년 제1회 MBC대학가요제에서 〈나 어떡해〉로 대상을 거머쥔 농대 밴드 '샌드페블스' 재학생의 공연이 있었다. 이제는 농생대라는 단과대학을 넘어 서울대 재학생 전체의 인기 밴드로 발전하였고 다양한 학부의 재학생들이 모인 결과 연주 실력도 더욱 좋아졌다고 한다. 샌드페블스는 요즘 밴드들이 즐겨 연주하는 아시안 타이거즈의 〈비 냄새〉라는 곡을 시작으로 비틀즈의 〈Come Together〉, 퀸의 〈Don't stop me now〉, 무한궤도(신해철 소속)의 〈그대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드페블스의 〈나 어떡해〉를 연주하였다. 밴드의 요란한 소리와 동문들의 시끌벅적함 속에 좌중에게는 행운권이 배포되었고 공연을 마치자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었다. 올해 행운권은 경품을 후원한 분들이 직접 행운권 추첨을 하여 당첨자를 선정하였다. 당첨이 되지 않은 동문에게는 동창회가 따로 준비한 기념품이 지급되었으며 새해인사회를 마친 동문들은 동창회 기념품과 학교의 계란 선물, 새해 떡, 그리고

동창회 경품을 담은 큰 가방을 들고 귀가하였다.

올 새해인사회는 비용 상승과 주관학번의 부담을 고려하여 동창회 임원과 명예교수, 그리고 주관학번을 제외한 참가 동문들에게 3만 원의 신청금을 받은 첫해였다.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 다소 불만이 없지 않았으나 동창회와 주관학번, 그리고 경제 상황에 맞게 동창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 많은 동문들의 혜량을 바란다. 새해인사회로 동문들이 건강하고 복된 병오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박식순 동창회장 신년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제9대 동창회장이셨던 이현수 고문님, 제10대 동창회장이셨던 류관희 고문님, 그리고 직전 동창회장이셨던 서병륜 명예회장님과 자문위원님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학교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주신 강병철 학장님을 비롯한 모교 교수님들, 그리고 상록문화재단 이사님들과 동문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위해 공연과 진행을 도와주러 온 재학생 여러분께 우리 동창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 매우 활동적인 기운의 해라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하거나 무엇에 도전하기에 좋은 해라고 하니 동문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면에서 한 층 배가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6년 새해인사회는 1976년도에 입학한 동문들께서 뜻을 모아 준비하였습니다. 새해인사회가 잘 되게끔 애쓰신 76학번 전체 대표이신 조계현 농화학과 대표님과 행사의 사회를 맡아주신 농생물학과 대표이신 이규봉 대표님, 그리고 기금 모금과 행사 준비를 위해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각 학과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입학 50주년을 자축하여 주시는 76학번 모든 동문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로 우리 동창회는 올해로 창립 78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그 긴 세월만큼 전통을 지키고 모든 면에서 타 대학 동창회의 모범이 되는 동창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창회에 대한 동문의 남다른 애정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
매우 활동적인 기운의 해라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하거나 무엇에 도전하기에
좋은 해라고 하니 동문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면에서 한 층 배가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동창회는 동창회 산하의 상록문화재단을 발판으로 동창회보 등 발간사업과 장학금 지급, 상록문학상,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 등 포상 사업, 학교와 동문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원과 세미나 사업, 그리고 동문의 화합을 위한 친목회 사업 등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아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창회와 우리 상록문화재단을 믿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5년에도 많은 동문께서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주셨고 몇몇 큰 선배님들께서는 꼬깃꼬깃 애써 모은 큰마음을 시원하게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에 보내주시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자금 그리고 학교를 위한 연구자금과 학생회 활동 지원 등으로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음을 보내주신 동문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5년 5월 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동창회의 친목을 도모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상록 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골프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임원 대상으로 하였는데 의외로 문자를 하자마자 10분 내로 빠른 답변과 함께 답변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찬성을 표하여 골프대회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대회장을 예약하고 대회 알림 공지가 나간 후 10일 만에 26팀이나 접수를 하는 이변과 함께 초유의 대회가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이었지만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1,000만 원의 후원금과 함께 대회장을 맡아주신 서병륜 명예회장님과 기념품을 후원하여 주신 강병철 학장님, 그리고 농골모를 운영하며 대회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신창근 농골모 대표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1회 대회 우승팀인 임산7080팀은 올봄에 있을 서울대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우리 농생대를 대표하는 팀으로 공식적인 출전을 하



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깃든 2026년 올 한 해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고 댁내에 웃음과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현장과 다소 동떨어진 논문 성과 위주의 연구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최고 수준의 지성을 다시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강병철 모교 학장 축사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제29대 학장 강병철입니다.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붉은 말의 기운이 충만한 오늘, 특히 대한민국 농업의 길을 열어오신 역대 동창회장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든든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농생대는 1906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세우고 생명과학의 발전을 선도해 온 긍지 높은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1970년대 식량 자급을 통해 국가 경제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던 성과는 우리 대학의 자부심이자 긍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인류는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농생명 산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을 이끌어야 할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생대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30위권으로 크게 발전하며 학문적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지금까지의 성과는 현장과 다소 동떨어진 논문 성과 위주의 연구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최고 수준의 지성을 다시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학의 부속 시설이 농업계 고등학교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과수원에서는 사과 한 알 열리지 않고, 사료값이 부족해 가장 저렴한 사료로 소를 키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





실입니다. 농장 운영비가 없어 교수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세상은 스마트 농업과 AI를 논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그 현장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보다 더욱 뼈아픈 것은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의 유출입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한 300명의 학생 중 무려 80명이 전공 배정을 앞두고 자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을 자부하는 우리 농생대의 미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것은 학장으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26년, 개교 120주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먼 미래의 후배들이
선배님들께서 가꾸어 온 이 터전에서
마음껏 꿈꾸고 연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큰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생대의 새로운 120년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저와 29대 회장단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120년의 역사를 토대로 우리 대학을 '글로벌 농업생명과학의 혁신 허브'로 재건하겠습니다.

첫째,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기초 연구가 교육 데이터가 되고, 이것이 AI와 결합하여 종국에는 산학협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농업 기술을 동남아를 비롯한 개도국에 전파하여 대한민국 농업의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셋째, 자산의 독자적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2025년 안양수목원 무상 양여에 이어, 최근 태화산 학술림 양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칠보산까지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자산에 대한 독자적인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선후배님들의 땀과 눈물이 깃든 농장과 목장, 학술림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 현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학교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전에 걸맞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혁신 프런티어 및 인턴십 기금'과 '인프라 개선 기금'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학부생들에게 연구실 인턴 기회를 제공했을 때, 생태계와 학문의 즐거움을 깨닫고 농생명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소중한 변화들을 확인했습니다. 인재를 붙잡는 마중물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터전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 첨단 연구의 실증 터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2026년, 개교 120주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먼 미래의 후배들이 선배님들께서 가꾸어 온 이 터전에서 마음껏 꿈꾸고 연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큰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곳에서 꿈을 꾸던 그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 농생대의 새로운 120년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계현 76학번 전체 대표 인사말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님, 동창회장님, 그리고 늘 앞에서 길을 밝혀 주신 선배님들과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농대 76학번 농화학과 대표, 2026년 새해인사회를 주관한 전체대표 조계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76학번 동기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것은 우리의 모교를 이끌고 계신 학장님과 서울농대의 전통과 품격을 몸소 보여주신 선배님들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다져주신 학문의 토양과 삶의 기준 위에서 우리는 배우고 일하고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 세대를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76년, 우리는 이 농대의 교정에서 흙을 배우고, 생명을 배우고, 기다림과 책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76학번 동기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은 달랐지만 농대에서 배운 성실함과 인내, 공존의 가치만큼은 같은 뿌리로 간직한 채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 왔다고 믿습니다. 농업은 눈에 띄는 속도보다는 지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분야입니다. 한 계절 한 계절을 견뎌야 비로소 결실을 맺듯, 우리의 인생 또한

선배님들께서 다져주신 학문의 토양과
삶의 기준 위에서 우리는 배우고 일하고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 세대를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했습니다. 이제 우리 76학번의 역할은 앞서 나가기보다는 뒤에서 받쳐주고, 방향을 잡아주며, 후배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늘과 울타리가 되어 줄 세대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생명 산업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농업과 농대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76학번이 말보다 삶으로, 조언보다 태도로 후배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세 가지를 기원드립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만남도 이어지고 동문 간의 인연도 오래갑니다.

둘째, 연대입니다.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늘 마음의 고향 같은 든든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서울농대 정신의 계승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물려주신 이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굳건히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고 2026년 한 해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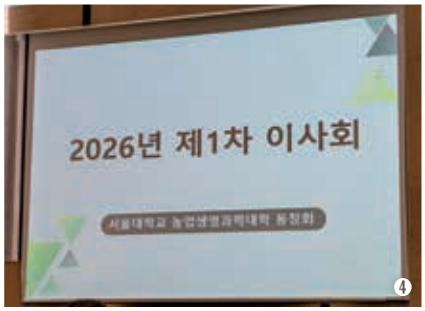
정하우 명예교수 원로 덕담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새해인사회를 준비한 76학번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새해에도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사 모습















❶ 접수 ❷ 반가운 만남 ❸ 잘 지내셨지요? ❹ 이사회 시작 ❺ 수석상임부회장 이사회 사회 ❻ 이사회 보고 ❼ 이사회 찬조발언, 장판식 前학장 ❽ 국기에 대한 맹세 ❾ 내빈 소개 ❿ 동창회장 신년사 ⓫ 강병철 학장 축사 ⓬ 원로 덕담 ⓭ 주관학번 대표인사 ⓮ 주관학번 장학금 전달 ⓯ 동문 세배

행사 모습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❿



⓫



⓬



⓭


⓮


⓯

❶ 재학생 세배 ❷ 학생회 격려금 전달 ❸ 복떡 ❹ 복떡 나누기 ❺ 가야금 연주 ❻ 해금 연주 ❼ 판소리, 박타기 ❽ 이현수 고문 건배사 ❾ 건배 ❿ 샌드페블스 공연 ⓫ 행운권 추첨 ⓬ 대박상품 당첨 ⓭ 대복상품 당첨 ⓮ 폐회 선언 ⓯ 기념품 수령

2023, 2024, 2025 HCR(Highly Cited Researcher)
클래리베이트 피인용 세계 1% 학자

농림생태계 탄소순환 글로벌 연구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류영렬(조경97) 교수



2024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연구부문 수상

2011년 본교 부임한 이후 농림생태계의 탄소순환에 대한 글로벌 초학제적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나고 보면 기적의 연속들이 저를 이 분야로 이끌었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은 그림 그리고 도면 그린 기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예술가적 자질이 없음을 일찍 깨닫고,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관리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진학하여 이도원 교수님 지도하에 경관생태학을 공부하며 과학의 즐거움을 처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유학을 생각하고 준비하였으나 당시 미국의 경관생태학 분야 기금 사정이 좋지 않아 첫 도전에서 모두 낙방했습니다. 석사 졸업 이전인 2005년 1월에 결혼도 한지라, 유학 재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의 소개로, 당시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에 재직하셨던 김준 교수님(2010년 서울대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초대학과장)의 CarboKorea/HydroKorea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인턴연구원을 하면서 유학 재수를 했는데, 당시 농림생태계의 탄소순환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관생태학은 경관 요소들 사이의 수평적 작용에 초점을 뒀다면, 당시 배운 에디공분산시스템은 경관과 대기의 수직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매우 흥미로운 분야였습니다. 김준 교수님의 생물기상관측 수업을 청강했는데, 당시 펜만-몬티스 방정식(Penman Monteith equation)의 아름다움에 빠진 기억이 납니다. 2005년 8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미국 생태학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참석했습니다. 유학 재수 기간 생애 첫 해외 학회 참석이었고 여기서 무엇이든 인연을 맺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참석했습니다. 당시 포스터 발표를 했는데, 제 포스터 앞에 한 미국인이 왔는데 이름표를 보니 조슈아 피셔(Joshua Fisher)였습니다. 그분의 논문을 보고 여러 질문을 이메일로 주고받았었기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당시 UC 버클리(UC Berkeley)의 박사과정이었는데 이 학생은 놀랍게도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원생이 신입생 추천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지금도 흔치 않은데 이렇게 김준 교수님, 이도원 교수님, Hydro Korea 과제의 멘토셨던 강원대 강신규 교수님, 그리고 조슈아 피셔 네



2024년 미국 지구물리학회(AGU)에 참석한 연구실 식구들



2018년 Cabo San Lucas에서 가족사진

통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2006년 UC 버클리의 데니스 발도키(Dennis Baldocchi)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발도키 교수님께서 조슈아의 추천서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버클리에서의 박사과정 동안 농림생태계의 여러 주제를 깊게 연구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좋은 지도교수님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날마다 토론을 통해 마치 스펀지처럼 관련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농림생태계의 탄소순환은 작게는 엽록소부터 크게는 전 지구 육상생태계를 다루는, 도전적인 초 학제 학문 분야입니다. 발도키 교수님께서 FLUXNET의 리더로서 전 지구 현장관측 네트워크를 리드해오셨기에 자연스럽게 툰드라, 열대림, 온대림, 한대림, 경작지, 초지, 사바나 등 여러 생태계의 데이터에 익숙해지며 전 지구에 걸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NASA 지구와 우주 과학 펠로십(Earth and Space Science Fellowship)에 제출한 제안서가 선정되어 NASA 장학금을 받으며 MODIS 위성을 이용한 전 지구 증발량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서 애를 먹던 중,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Azure)라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운 좋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으로 애저의 250개 가상머신을 무료로 사용하며 대용량 위성 자료를 처리·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컴퓨터과학자들과의 협력은 하루하루 즐거웠고 협력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Department of Organismic and Evolutionary Biology'에 박사후과정으로 진학하여, MCMC(Markov Chain Monte Carlo)를 이용한 생태계 탄소순환 모델의 불확도를 정량화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배경지식이 전무했던지라 교과서를 뒤적이며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9개월간 짧은 박사후과정을 마치고 2011년 서울대에 임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농림생태계 탄소순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림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의 광합성 알고리즘 개발 책임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NASA, ESA, JAXA 등 여러 국가의 위성 자료들을 사용해왔는데 대한민국의 위성 자료는 대부분 보안이 걸려 있어서 육상생태계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2018년경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해서 올해 가을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광합성 알고리즘 및 ARD(Analysis Ready Data) 개발, 두 개 과제의 책임을 맡았는데 올가을 위성 발사 후, 개발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NASA ECOSTRESS 위성과 JAXA GCOM-C 위성들의 광합성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었는데 드디어 대한민국 위성의 광합성 알고리즘을 만들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 구글 회장, 에릭 슈밋의 지원으로 차세대 육상 기후모델 개발에 나선 것으로 들었습니다.

2013년경 호주 동부 골드코스트(Gold Coast)의 작은 빌라에서 10여 명의 연구진들이 모여서 지면 모형에 대한 워크숍을 5일간 매 끼니를 함께 하며 진행했습니다. 당시 새내기 조교수였던 저를 제외하면 세계적인 대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탄소순환의 석학이신 콜린 프렌티스(Colin Prentice) 교수로 2019년 어느 날 저에게 메일을 보내 2013년 이후로 제 논문들을 팔로우해오셨다며 슈밋 사이언스(Schmidt Sciences) 재단의 제안서에 참여할 것을 제안해 주셨어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레딩 대학교(Reading University), UC

버클리, 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 위트레흐트대학교(Utrecht University), 텍사스 공과대학교(Texas Tech University), 피츠버그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가 연합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었고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되었습니다. 5년간 1,000만 달러를 지원받는 과제였는데 팬데믹 기간과 겹치면서 과제가 일부 지연된 끝에 내년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세(tax) 기반의 연구들은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한 연구에 국한되는 경향이지만 기부에 의한 재단연구(Schmidt Sciences 재단을 포함한 Gates Foundation, Betty and Moore Foundation 등)는 국경을 초월한 연구를 전폭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구글 회장 에릭 슈밋(Eric Schmidt)이 만든 슈밋 사이언스 재단은 기후변화, AI 등 여러 분야에 큰 연구비를 전폭 지원했고, 요구하는 과학 질문들은 최전선의 앞에서 더 뛰어나가야 하는 도전적인 것들로 소수의 연구자 혹은 특정 국가에서 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진 선정도 국적, 커리어 단계, 인종 구성, 남녀 성비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했고, 초기 단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여, 매년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생들에게 상호 기관 방문 및 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국제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여러 시간대의 국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다 보니 대부분 회의가 밤늦게 이뤄졌고 매년 대면으로 정기적 학술대회가 진행되어 지난 5년간 연구진끼리 매우 친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본교에서 애뉴얼 사이언스 미팅(annual science meeting)을 주최했고, 연구진들이 서울의 뜨거운 여름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제 수행과정에서 제 연구실도 많이 성장하여 최고 수준의 저널들에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사이언스에 대한 눈높이, 추진방법, 협력체계 등 여러 교훈을 얻은 과제였습니다.

지금의 연구활동에 이르도록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나고 보면, 제가 혼자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중한 인연 도움 덕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나고 보니, 학문의 대가 중 극단적으로 친절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고 그분들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박사과정 지도교수이신 UC 버클리의 데니스 발도키 교수님입니다. 4년이 안 되는 박사과정 동안 지도교수님과 거의 매일 토론했습니다. 연구분야 외에도 정치, 예술, 음식 등 모든 분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눈만 휘둥그레 뜨곤 했는데 그런 매일매일의 시간이 축적되다 보니 제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제 삶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을 만나는 게 재미있어서 지도교수님 출근 10분 전에 늘 연구실에 도착해서 들뜬 기분으로 기다리곤 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피인용 횟수가 10만 회가 넘고 FLUXNET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세우신 세계적인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친절함과 겸손함 속에 멈추지 않는 유머 감각으로 가득찬 순수한 과학자십니다. 매거진(Magazine) 저널 혹은 높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를 추종하는 시류에 흔들림 없이 평생을 도메인 저널에 꾸준히 출판하시며 해당 분야를 크게 발전시키셨습니다.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 협력을 통한 더 큰 과학으로의 발전,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과학 발전을 가속하는 지도력, 이 모든 모습은 제 과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버클리의 석좌교수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1 저자 논문을 줄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또 한 분으로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카네기 연구소의 조 베리(Joe Berry) 박사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식물생리학, 특히 광합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파르쿠하르(Farquhar) 교수님과 개발한 광합성 모델 1980년 논문은 피인용 횟수가 1만 회가 넘습니다. 제가 버클리에서 박사를 하면서 아이 둘을 낳았기 때문에 베이 에어리어(Bay area)는 우리 가족에겐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연구년 장소를 물색하면서 베이 에어리어 지역으로 가고 싶었고 제가 학위를 한 버클리보다는 스탠퍼드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2014년경 태양 유도 엽록소 형광(Sun-induced chlorophyll fluorescence) 연구를 시작했고 이 분야를 선도하신 베리 박사님 연구실에서 연구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2015년경 접촉했습니다. 이분의 첫 질문은 "how much is your salary"였습니다. 서울대 조교수 5년 차 세후 월급은 매우 초라했지만, 솔직히 대답을 드렸더니 "your family can't survive here with it"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인근의 고물가는 익히 알고 있었던 터였는데 놀랍게도 베리 박사님께서는 제게 5만 달러를 지원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받으니 뭔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2010년 UC Berkeley 학위수여식장에서 가족 사진

는 생각에 베리 박사님께 무슨 과제에 이바지하면 되냐고 여쭸더니 이분의 대답이 "Let's do good science." 한 문장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연구년을 하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연구를 실컷 했습니다. 물론 이분의 지원 덕에 제 가족은 그 비싼 지역에서 생존하며 평생 간직할 추억도 만들었고요. 베리 박사님은 2022년 퇴임하셨고, 80대 중반이신 현재도 1저자 논문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친절함, 겸손함, 유머 감각은 발도키 교수님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 과학의 여정에서 이런 소중한 분들을 만난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필 만난 분들이 저런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분들이란 게 모두 기적과 같습니다. 제 석사과정 지도교수님이신 이도원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점심식사에 모셨는데, 식사 시간 대화의 내용이 전부 과학이었습니다. 산림 탄소 순환, 지형학, 식물과 지형의 상호작용 등 과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여전히 가득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제 인생의 멘토로 모시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고, 저 역시 제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다짐을 늘 하곤 합니다. 제가 연구실을 키워오면서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1호 박사를 배출하는 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초반에 정말 많이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경영 관련 책을 자주 봤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책을 자주 봤는데 혁신적인 연구실을 만드는 과정은 실리콘밸리의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에릭 슈밋의 *Trillion Dollar Coach*를 읽으며 연구실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많은 자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higher you climb, the more your success depends on making other people successful." 이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늘 연구실 구성원들 그리고 인연이 있는 후학에게 "Your success is my success."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 진심이 담긴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제 주변의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지나고 보니, 발도키 교수님, 베리 박사님, 이도원 교수님 모두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아직 연구에 대한 계획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연구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중요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농업 초분광 큐브 위성 센터와 작황 모니터링 전용 큐브 위성군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중입니다. 과거 위성개발 전략은 비싸고 큰 위성을 10년 이상에 걸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수년의 기간에 10분의 1이 안 되는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다수의 위성군을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매년 10조 원의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확신합니다.

또 다른 주제는 열대림입니다. 아마존, 콩고, 동남아시아 열대림은 전 지구 탄소순환의 핵심이며 이 지역의 광합성, 호흡, 그리고 산불/토지 이용변화 등에 따른 탄소흡수/방출량은 불확도가 매우 높은데도 이 지역의 탄소순환은 알려진 바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생태계의 탄소흡수 및 저장을 정량화하는 연구입니다. 기존의 인벤토리 기반은 표집(sampling) 기반의 연구이고, 저는 모집단(population) 전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국토 단위에서 개별 수목까지 탐지하여 탄소흡수/저장량을 초고해상도로 정기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시장 개척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셨을 텐데 가족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악가인 아내와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UC 버클리로 유학을 가면서 아내는 샌프란시스코 음악원(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의 석사과정에 입학했는데 학위 과정 중 출산과 휴학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마칠 때 아내는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늘 가족을 챙기고 긍정의 힘을 온 집안에 충만하게 해준 아내에게 늘 고마울 뿐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물려주신 양가 부모님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유학 중 2009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님께 제 모든 감사, 사랑, 그리고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 1학기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학부, 대학원 장학금 단체사진

2026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6년 제1학기 서울대학교 상록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김진모 동창회 수석부회장 겸 재단 이사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75-1동 203호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총 58명의 학생에게 1억 1,4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박식순 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장학생들에게 마음이 따듯한 사람,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길 항상 응원한다고 하였다. 강병철 농생대 학장 대신 인사말을 전한 김현석 교무부학장은 장학금을 기부한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개교 80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의 슬로건 '4C'[(창의(creativity), 도전(challenge), 협동(collaboration), 소통(communication)]를 언급하며 장학생들이 미래가 원하는 인재가 되길 축원하였다. 수여식을 마친 후 이학래 전 농생대 학장은 기부자들을 대표한 격려사에서 서울대 내에서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과대학인 농생대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 근간에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배들의 노력이 있다고 하며 장학생들도 남들 앞에서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지 말고 내실 있는 꽉 찬 수레가 되라고 하며 초등학생부터 멀리 해외에서 온 유학생까지 장학금을 후원하는 상록문화재단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이어서 장학생들을 대표한 김인환(스마트시스템과학과25) 학생은 상록문화재단의 장학금은 본인들에 대한 재단의 신뢰의 표식이라 생각한다며 장학금의 뜻에 보답하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학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하였다. 이어서 학부모를 대신하여 '해밀의 집' 그룹 홈을 운영하는 정창옥 대표는 상록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길을 잃은 청소년들이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기부금을 제공해 준 기부자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올해로 17년째로 접어드는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은 2009년 한인규 제7대 동창회장의 제창으로 역대 회장들이 6대 고(故) 윤근환 회장 때까지 모은 2억 원의 동창회 기금과 7대 고 한인규 회장, 8대 고 정윤환 회장, 9대 이현수 동창회장이 각각 1억 원씩 출연하여 만들어진 동창회 산하 재단으로 해마다 약 2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모교 학생과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현재 12대 박식순 동창회장은 2025년 신설된 농생대의 '스마트시스템'과학과에 학기마다 1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여 미래 스마트 농업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이사장 인사말


박식순 이사장

반갑습니다. 먼저, 2026년 1학기 상록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기부자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년째 '사랑인재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비를 후원해 주시는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순형 선배님과 지인인 연고로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전과천문인협회장이신 민병채 님과 신희철 님, 이선형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과 후원자분들의 한결같은 응원과 후원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장학생 여러분, 함께해 주신 선생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가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장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는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선배님과 동문분들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응원하며, 학업에 집중해서 마음껏 꿈을 펼치라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격려의 손길입니다. 누군가의 나눔이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자리를 오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더 성장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여러분도 후배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적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농생대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이 언제나 여러분 뒤에서 든든하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의 이 응원을 떠올리며 끝까지 용기 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록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80주년 개교 기념 슬로건 "4C"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김현석 교무부학장 축사


김현석 교무부학장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 상록문화재단은 고 한인규 교수님의 제안으로 설립된 오랜 전통이 있는 재단입니다. 2009년부터 농생대 동창회 기금과 7, 8, 9대 회장님들의 출연으로 시작된 상록문화재단은 지난 17년간 매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꾸준히 지급해 왔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귀한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기부자 동문 선후배님들의 모교와 후배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과학 기반의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5년 신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의 발전을 위해 박식순 동창회장께서 직접 스마트시스템과학과 학생 10명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해 상록문화재단에 1억 원을 희사하시어 그 일부가 우리 대학의 연구활동에 지원이 되도록 해주신 임명미 선배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장학생 여러분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기부하신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는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장학금 이면에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역시 언젠가 또 누군가의 내일을 응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학업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우리 서울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이 됩니다. 이에 학교에서 80주년 개교 기념 슬로건으로 "4C"를

표방하였습니다. "4C"는 창의(creativity), 도전(challenge), 협동(collaboration), 소통(communication)을 의미합니다. 오늘 장학금을 수혜받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런 4C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상록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축사를 마칩니다.

훗날 여러분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오늘 받은 이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고
다시 후배들에게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어가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학래 기부자 대표 격려사



이학래 前 학장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식순 동창회장님과 학장님, 부학장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장학금을 내어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농생대 동문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장학금 전통입니다. 우리 농생대 동문들의 기부 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내에 17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생대 동문들이 내놓은 장학금 규모가 단연 1위입니다. 상록문화재단을 비롯해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장학금이 워낙 풍부해서, 타 단과대학에서도 우리 농생대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생대 졸업생들을 보면 '찬술(가득 찬 수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빈 수레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기를 과시하지만, 속이 꽉 찬 수레는 소리 없이 묵직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바로 그렇게 묵묵히 내실을 기하며 사회 곳곳에서 기여해 오셨고, 그 결실을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선배님들의 귀한 정성을 받은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오늘 받은 이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고 다시 후배들에게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어가 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초·중·고등학생 여러분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서울대학교, 그중에서도 우리 농생대에 진학하여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멀리 타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까지 나눔의 손길을 뻗고 있는 상록문화재단의 활동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건승을 빌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도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생 대표 김인환 군 감사의 인사



김인환 장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스마트시스템과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 김인환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장학생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하게 된 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에게 배움의 기회를 내어주신 선배님들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록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이 장학금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저희를 향한 신뢰이자 기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저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또 신뢰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마음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른 전공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배님들께서 주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환경을 허비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학생 대표로서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지만, 제 뒤에는 감사함과 책임감을 가진 모든 장학생이 함께 서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도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과 상록문화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의 성장이 곧 재단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걸음으로 그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상록문화재단 사랑인재장학생 최서인, 국가 5급 공채 수석 합격



최서인(산림환경학 20)

㈜경동제약이 후원하는 상록문화재단 사랑인재장학금의 2026년 제1학기 장학생 최서인 학생이 2025년 국가 5급 공채 과학기술직 시험에 수석 합격해, 향후 산림청 사무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최서인 학생은 "이번 결과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기부자님의 나눔과 사회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장학금은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상록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이**입니다.

먼저 저의 가능성을 믿고 소중한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처음 장학생 선발 소식을 접했을 때의 그 벅찬 기쁨과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는 1학년 때의 설렘을 뒤로 하고, 본격적인 전공 공부와 마주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학년이 올라가며 공부해야 할 양은 늘어나고 내용은 깊어지는데, 현실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에 마음이 쓰여 온전히 학업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과 학업 사이에서 갈등하던 제게, 이번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큰 위로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지원 덕분에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다른 걱정들로 시간을 쪼개기보다, 전공 서적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데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 과학이라는 학문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시스템 최적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들을 융합적으로 다루는 분야인 만큼, 탄탄한 기초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공 심화 과목에 더욱 충실히 임하고, 관련 학회나 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문적 시야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2학년이라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저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넘어서, 사회의 따뜻한 배려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지원이 한 학생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느꼈기에, 저 또한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임하겠습니다. 훗날 제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서게 되었을 때, 제가 오늘 받은 이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며 주변을 살피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재단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의 꿈을 지지하며 쌓아온 선한 영향력이 저를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더욱 갈고닦겠습니다.

재단에서 제게 보여주신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 내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운 지식을 사회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뛰고 고민하며, 제가 선택한 길에서 제 몫을 다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박숙자 장학금, 임영오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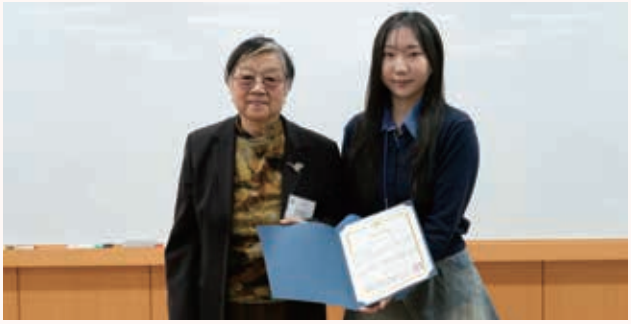
이학래 장학금, 윤혜정 장학금



김홍기 장학금



심상우 장학금



故 이광우 장학금



김상석 장학금



김철순 장학금



윤석용 장학금



류관희 장학금, 김병화 장학금, 고상운 장학금



임명미 장학금



박식순 장학금



응용생명화학동문회 장학금



사랑인재장학금



윤석용 학업장려금



광교동문회 장학금



민병채 장학금



신희철 장학금



이순형 장학금

2026년 제1학기 장학생 명단

수석신입생 장학생 1명	최윤재 장학금	학부생 장학생 25명	박숙자 장학금	임영오 장학금	이학래 장학금	윤혜정 장학금	김홍기 장학금	김홍기 장학금
								
	박민우 응용생물화학부		현서윤 원예생명공학	권인진 산업인력개발학	이동훈 산림환경학	강지웅 환경재료과학	곽민아 작물생명과학	정지호 식품생명공학
심상우 장학금	이광우 장학금	김상석 장학금	임수인 장학금	김철순 장학금	윤석용 장학금	류관희 장학금	김병화 장학금	고상운 장학금
								
권지우 동물생명공학	이예진 응용생명화학	강성훈 응용생물학	임재혁 바이오시스템공학	서준영 조경학	양주성 바이오소재공학	조이황 지역시스템공학	국윤서 농업 · 자원경제학	김민규 지역정보학
박식순 장학금	박식순 장학금	박식순 장학금	박식순 장학금	박식순 장학금	박식순 장학금	박식순 장학금	박식순 장학금	박식순 장학금
								
강정서 스마트시스템과학	고준서 스마트시스템과학	김인환 스마트시스템과학	김희연 스마트시스템과학	나혜민 스마트시스템과학	남민서 스마트시스템과학	이민섭 스마트시스템과학	임강한 스마트시스템과학	정유신 스마트시스템과학
박식순 장학금	대학원 장학생 2명	임명미 장학금	임영오 장학금	모수미 장학생 대학원생 1명		응용생명화학 동문회 장학생 3명		
								
조원우 스마트시스템과학		비비 산림환경학(원)	김예은 산업인력개발학(원)		Moshiro 산림환경학(원)		이건우 응용생명화학	권해리 응용생명화학
	사랑인재장학생 6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기부자: 경동제약(주))							이순형 장학생 11명
임세훈 응용생명화학		신준호 작물생명과학	최동민 응용생명화학	김지훈 응용생물학	정승연 조경학	최서인 산림환경학	하태인 산업인력개발학	
								
이준석 식품생명공학	홍유찬 산업인력개발학	박주희 식물생산과학부	권도훈 스마트시스템과학	홍흥일 조경학	유은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정유진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신영건 분당중앙고등학교 2학년	정가은 천일중학교 1학년
		윤석용 장학생 1명		광교동문회 장학생 3명				민병채 장학생 3명
최현진 향일고등학교 1학년	박은지 양감중학교 2학년		김민채 우송대학교		박정우 수원농생명과학고 2학년	진유후 수원농생명과학고 2학년	김준희 수원농생명과학고 2학년	
			신희철 장학생 2명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농협 301-0068-1319-91 (예금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입금시 홍길동 농학00		
전소민 한양대학교	이예린 과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지인 과천중학교 2학년		장유엘 청계초등학교 1학년	조재영 서울동산고등학교 1학년			

그날의 선언, 반세기의 울림

우리는 왜 아직 김상진을 기억하는가?

(사)김상진기념사업회 회장 정근우(농화학84)



모교 김상진 추모비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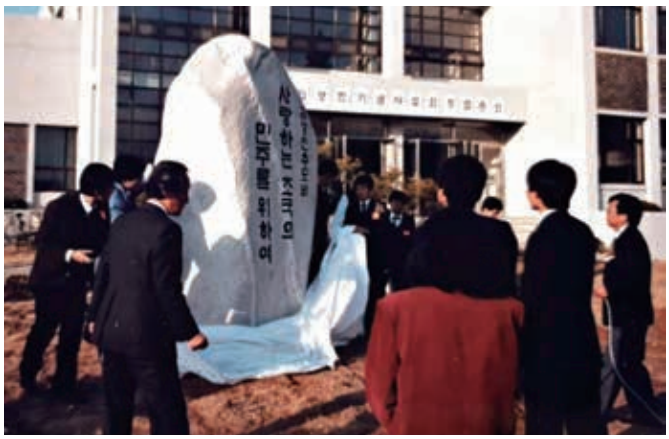
(사)김상진 기념사업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진기념사업회는 1975년 4월 11일 농대 교정에서 김상진 선배님의 할복 사건이 발생한 이후 13년이 지난 1988년 11월 20일에서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상황으로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80년대 중반까지도 서울 농대에서 김상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나, 묘소를 찾아가 참배 또는 추도식을 한다는 것은 큰 각오를 해야 할 하나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로소 합법적인 공간에서 추모제를 가질 수 있었고 공식 '기념사업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설립 목적은 김상진 열사 묘소를 비롯한 기념비, 표석 등 각종 유적 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사업과 유족을 위로하며 교류하는 일 그리고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장학사업, 학술 및 문화예술 등 제반 기념사업, 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집, 소식지의 발간 등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그동안 38년간 김상진 열사 기념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참여의 범위는 농대 출신을 비롯해 서울대 전체 차원에서 "김상진"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56학번부터 2020학번까지 망라되어 1,3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초대회장으로 안종건(축산'68) 회장님을 필두로 제2기 고 공재호(임학'73) 이사장, 제3기 이병호(농교육'75) 이사장 집행부를 거쳐 2016년부터 제가 제4기 집행부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200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공식성을 더욱 갖추게 되었습니다.

80년대는 민주화 항쟁의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5월이면 흩날리는 벚꽃 속에 최루탄 가스의 매캐함이 떠오릅니다. 김상진기념사업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같이 84년도에 입학한 세대는 김상진 열사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선배들로부터 전설로만 전해 들었고, 텍스트로 그 정신을 익혔지요. 김상진 열



수원 교정에서 진행된 열사 추모비 제막식
(1988년 11월 20일)

대학은 휴강의 노예가 되고, 교수들은
정부의 대변자가 되어가고, 어미 닭을 잃은
병아리마냥 우리들은 반응 없는 울부짖음만
토하고 있다. 학우여,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을 것임을 재천명한다.

사의 「양심선언문」이 그것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소위 개발 독재의 시대였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은 한 발치 뒤에 두어도 된다는 의식 속에서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마구 휘둘러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감옥에 보내고, 재판을 한 뒤 이틀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경종을 울리며 자기의 목숨을 바친 분이 바로 김상진 선배였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깨달음이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명에 가고 80년 민주화의 봄을 잠시 비추다가 또다시 암울한 독재자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통성이 일도 없는 권력자에게 청년 학생들은 양심의 목소리로 저항하였고 수없이 많은 목숨이 꽃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80년대는 그러한 광주의 아픔으로 시작되었고 80년대 학번들은 김상진 열사가 75년에 외치던 「양심선언문」을 읽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4월 5월은 캠퍼스에 최루탄 가스 연기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눈물을 흘리며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저도 84년은 관악 캠퍼스에서 다니다가 이듬해 수원 캠퍼스로 와서 첫 번째 기억되는 장면이 4월 11일 '김상진 추모제'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소리로 「양심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는데 구구절절 살아있는 언어들이 바늘처럼 제 등짝에 꽂히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대학은 휴강의 노예가 되고, 교수들은 정부의 대변자가 되어가고, 어미 닭을 잃은 병 아리마냥 우리들은 반응 없는 울부짖음만 토하고 있다", "학우여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을 것임을 재천명한다" 등등 지금 보아도 주옥같은 문장들이 당시 대학 초년생인 제 가슴에 와 꽂히는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의 식량문제에 공헌하는 농학자가 되기를 소망했지만 4월 김상진 형의 세례(?)를 받고 또 그 시대에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사진 전시회를 보면서 "왜? 역사 속에서는 악인들에 의해서 선한 민중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나도 모르게 학생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위를 하다가 구속되기도 하였고 지금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86년 건국대 점거농성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뒤 다시 학교에 복학하여 1987년도 2학기 농대 학생회장 보궐선거에 나가 농대 학생회장으로서 다시 학생운동의 전면에 나섰다가 경찰 수배를 당해 오랫동안 도피생활도 하는 등 어렵게 학창시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상진기념사업회의 그간의 활동사항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김상진기념사업회는 설립 초기에 고생을 많이 하신 선배님들이 1988년 추모비도 건립하시고, 의거 현장에 표지석도 설치하시고 20주년이 되는 1995년에 『긴 겨울 얼음 뚫고』라는 제목의 평전도 출간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사업회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 매년 김상진 장학금도 20여 년 동안 지급하여 김상진 장학생들이 당시 농대 학생운동의 맥을 잇도록 하였으며 '선구자'라는 제호의 기관지를 최근 143호까지 정기적(계간)으로 발간하면서 후배들이 곳곳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생활 민주주의를 펼치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탓인지 2001년에는 문민정부로부터 김상진 열사께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서울대 명예졸업장 (2002.2.26.)　사월혁명상 (1992.4.19.)

김상진 열사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공식 인정을 받았고 2002년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당시 대통령(문재인)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받아 유족과 기념사업회 회원들은 그간의 힘든 세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1975 김상진〉을 만들어 전국 순회 상영을 하면서 일반 시민과 후배들에게 당시의 사정을 정확히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의거 50주년을 맞아 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먼저 관악 캠퍼스 75동 신축 건물에 '김상진 홀(hall)'을 명명해 재학생들이 그곳에서 수업을 받으며 김상진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50주년 기념으로 출간한 『오랫동안 김상진』 추모문집에 1975년 열사의 의거가 사회 민주화에 끼친 영향력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고, 38년 동안 기념사업회의 사업내용과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면서 향후 김상진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캠퍼스에 있는 의거의 장소를 표지석과 박석을 입혀 '김상진 민주광장'으로 명명하여 재학생과 경기도 상상 캠퍼스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열사의 정신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앞으로 기념사업회의 방향성 또는 해야 할 역점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싶은 사업은 김상진의 정신을 지금의 청년 세대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하는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여 전파하는 것입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선배들은 이제 70대가 되어가고, 80년대 학번들도 이제는 50, 60대가 되어 가면서 사회활동에서 은퇴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3 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20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극우화되어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현재의 여러 가지 사회 모습 속에서 '1975년 김상진의 정신은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신구 세대가 함께 머리와 가슴이 이어질 수 있는 토론과 공감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동창회를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 지키기 영상 콘텐츠 공모대회' 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출신들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음을 우리는 여러 자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키고 가꾸어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마친 후 어떤 사회생활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990년에 우여곡절 끝에 학부를 졸업하고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유기농업, 자연농업관련 농민단체에서 잠시 일하다가 생활의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농업 자재(시설원예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에 취업해서 30여 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99년에서 2001년까지 2년 동안 특수목적사업을 담당하면서 당시 현대아산(주)에서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지역 남북 농업협력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맡아 비닐하우스 1만 2,000평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추진하던 남북교류 경제협력사업 중 '농업분야'에서 남들이 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남북 간의 농자재 교류사업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법인 설립과정에 파견되어 8년간 중국 산동성에서 생활하였는데 그때 중국의 농업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체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원예 플라스틱 소재,



좌로부터 이주한(사무국장, 임산92), 정근우(회장, 농화학84), 이정자(임학85), 임세진(『선구자』 편집간사), 조미경(농가정89), 김원봉(운영위원장, 농화학88), 안병권(50주년 추진위원장, 농생물79)

특히 PO필름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나 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10년 동안 기념사업회 대표를 하다 보니 김상진 열사의 「양심선언문」을 1년에도 몇 번씩 읽게 됩니다. 학창 시절부터 따지면 아마 일백 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이 글이 역사적으로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격렬한 표현 때문이 아니라, 세 가지 차원, "역사적 상황, 윤리적 결단, 언어의 힘"이 동시에 결합된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신체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통찰이 대단합니다.

"합법을 가장한 폭력", "비민주적 허위성", "자기중심적 이기성".

가족과 당시 선배·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상진 열사는 학창 시절 매우 열정적인 독서가였다고 합니다.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깊이 탐독했는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은 뒤 밤길을 걸어와 그 감동을 밤새도록 토론했다는 조봉환(농학'67) 선배의 회고가 전해집니다. 또한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악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줄줄이 언급하며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을 보면 김상진 열사가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세계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소양과 독서력으로 가다듬어진 문장이 「양심선언문」이라는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인 텍스트를 창조해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동문들이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로 시작되는 선언문을 꼭 낭송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양심선언문」은 제 인생의 텍스트입니다.

당시 유신체제의 본질을
적확히 꿰뚫은 통찰의 텍스트
"합법을 가장한 폭력"
"비민주적 허위성"
"자기중심적 이기성"

오랜 세월 같이 활동한 분들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김상진 열사의 큰형님, 유족대표 김상운 형님께서 타계하시고, 오랫동안 후배들을 보살펴주신 김준기(농학'58) 선배님도 작고하셔서 마음 아픈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50주년기념사업 추진위를 맡아 애쓰신 안병권(농생물'79)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평소 기념사업의 일상을 챙기는 김원봉, 이주한 후배님들도 너무고생을 많이 하셨고, 『선구자』를 매호 편집하시는 임세진 편집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상진 열사가 꿈꾸었던 조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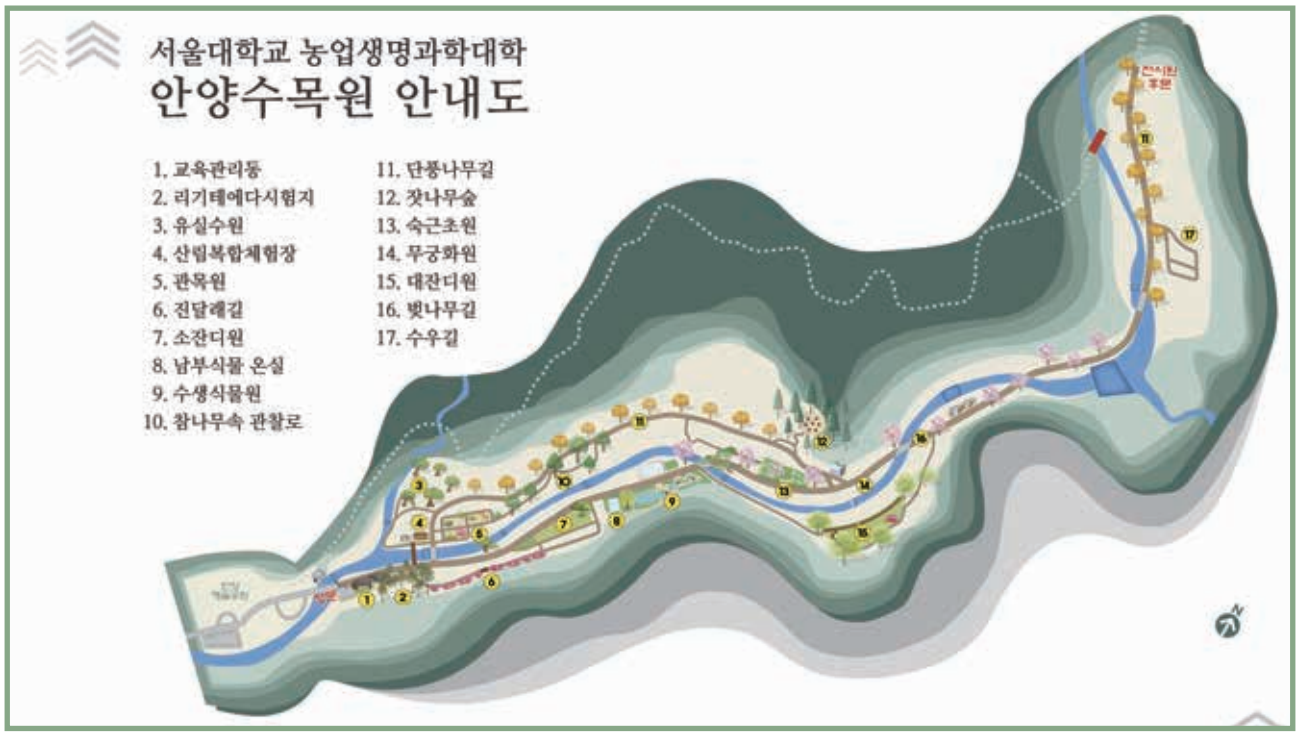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개방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구, 관악수목원) 일반인에 대한 예약제 개방


여름

1967년에 조성된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이 안양시와의 국유재산 무상상여 협약(수목원 1,550헥타르 중 안양시 소재 90헥타르에 대한 무상양여 협약)을 작년 9월 17일 마친 뒤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58년 만에 작년 11월부터 예약 없이 입장하고 올해부터는 2월까지 예약제 시범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는 평일 1,500명,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는 4,000명의 인원 제한으로 예약제로 일반에게 전면 개방되었다. 서울대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안양시는 출입 안내와 질서계도 등 사계절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는 산림치유, 목공, 숲해설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1977년의 수생초원과 현재 모습



안양수목원 이용방법

▶ 개방일: 화요일~일요일

▶ 휴원일: 월요일, 설날(신정 · 구정), 추석(당일 및 연휴 포함)

▶ 개방 시간

- 동절기(11월~3월) 10:00~17:00 / 입장마감 16:00
- 하절기(4월~10월) 09:00~18:00 / 입장마감 17:00
- 정문 · 후문 동일

▶ 입장 방법

- 2026. 3. 1.부터 예약제(정상 운영)

▶ 예약 방법 (오른쪽 QR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접수링크 연결)

- 개인별 예약(수목원 예약 시스템 – 개인별 QR 사용 / 단, 본인 포함 1인 최대 4명 예약 가능)
- 프로그램 예약(공문, 수목원 홈페이지, 안양시 예약시스템)
- 예약 및 취소: 방문일 30일 전~1일 전

*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전자공문 접수, 관련사항은 수목원 홈페이지 참조

https://arbor.snu.ac.kr/

▶ 출입 방법

- QR 태그(스마트폰), 입출입 모두 필요하며 당일 예약 및 재입장 불가

▶ 인원 제한

- 2026. 3. 1.부터 평일 1,500명, 주말 및 휴원일을 제외한 공휴일 4,000명

▶ 오시는 방법

1호선 안양역 1번출구 → 마을버스2번 → 안양예술공원종점 하차 → 도보 20분

1호선 관악역 2번출구 → 마을버스(6–2, 2–1) → 석수지구대 하차 → 도보 30분

자가용 이용시 공영주차장(안양예술공원) 이용후 도보 30분, 수목원 내 주차 불가

*수목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양수목원

안양수목원 화보 탐방로 산책



1. 정문



2. 교육관리동



3. 진달래길



4. 소잔디원



6. 임간교실



5. 온실과 수생식물원



7. 생명의 나무



8. 단풍길



9. 숙근초원



11. 중앙로



10. 무궁화원

2026년 새내기 배움터

2월 11일~13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서울대 농생대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개최되었다. 새내기 새로배움터는 농생대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행사로, 올해는 새터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그리고 각 학부/과/전공 회장단 등 118명의 운영진을 포함하여 총 503명이 참여했다. 아침 프로그램, 대동놀이, 공연 관람 그리고 다과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및 동기와 한 발짝 가까워지고, 여러 전공의 학우들과 교류하며 2026년 새내기들의 대학 생활 첫 장을 그려냈다.



전체사진

꿈과 비전이라는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라

최윤재 교수, 서울대 신입생 대상 축사



최윤재 장학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새내기 배움터에서 53년 선배인 최윤재 명예교수가 신입생들을 향한 따뜻한 환영과 인생의 이정표가 될 조언을 건넸다. 이날 축사에서 최 교수는 먼저 자신이 수석 입학생 장학금을 기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5~6년 전, 동창회장을 지내며 장학재단을 설립했던 고(故) 한인규 교수의 타계 후 수석 입학 장학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사비로 장학금을 이어받았다. 최 교수는 "그 어른의 정성과 열정에 의해 장학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나눔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대학 시절 정립한 세 가지 인생 목표: '민주화, 통일, 그리고 동행'

1973년 서울대에 입학한 최 교수는 합격 통지 후 두 달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경험을 회상했다. 그는 당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세운 목표(민주화와 통일정신, 나눔과 동행 등)를 소개하며 실제로 본인은 입학 후 '서둔야학교'에 들어가 학부 4년과 석사 과정 2년 동안 야학 교사로 봉사했으며, 그 인연을 현재까지도 이

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에 빚진 마음으로 주위와 동행하는 인재 되길

최 교수는 신입생들에게 단순히 성실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것을 권고했다. 그는 과거 교수 시절 신입생들에게 인생 계획표를 과제로 내주었던 일화를 언급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 생활한다면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서울대에 들어온 여러분은 국가로부터 선택받았고, 동시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며, "공부하여 꿈을 실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축사를 마쳤다.

서울대는 목적지 아닌 출발점... '태도(Attitude)'가 인생의 점수를 결정한다

정철영 교수, 동창회장을 대신한 축사



정철영 동창회 상임부회장 축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하 농생대) 새내기 배움터에서 정철영 명예교수(동창회 상임부회장)는 신입생들을 향해 융합형 인재로서의 자부심과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정 교수는 이날 유럽 출장 중인 동창회장을 대신해 참석하여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농생대는 '융복합의 용광로' K-POP의 주역 이수만도 동문

축사에서 먼저 농생대의 영문 명칭인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를 언급하며, 농업과학과 생명과학이 결합한 융합적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농생대는 서울대 내에서 문과와 이과가 공존하고, 농학·이학·경제학·교육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의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융합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라며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특히 K-POP의 선구자인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회장이 농생대 출신임을 언급하며, "문화(Culture)와 융합을 배우는 농생대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K-POP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생의 100점짜리 단어, '애티튜드(Attitude)'

그리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 역량으로 '태도와 가치관'을 꼽았다며 알파벳 순서대로 점수를 매겼을 때, 돈(Money, 72점)이나 권력(Power, 77점), 건강(Health, 54점)은 100점이 되지 않지만, '태도(Attitude)'는 정확히 100점이 된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쪽 눈을 실명하고도 이를 '사격할 때처럼 조준하기 좋은 조건'으로 여겨 골프를 잘 치게 된 후배의 일화를 소개하며, "약자에게 장애물은 걸림돌이지만, 강자에게 장애물은 디딤돌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신입생 여러분은 발 없는 이들 사이에서 신발을 얻은 행운아

또한 서울대 입학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서울대는 좋은 직장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리한 출발점일 뿐"이라며, 현재 자신이 가진 결핍이나 장애물을 탓하기보다 이를 디딤돌로 삼아 유능한 뱃사람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농생대 동창회가 신입생들을 위해 준비한 기념품(텀블러)을 전달하며, "3만 2,000명의 동창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찰흙' 같은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태화산 학술림·경기도 광주시 MOU 체결



12월 26일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관리 중인 태화산 학술림이 공익적 활용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대학교와 광주시는 무상양여 추진을 위한 협력과 함께 산림복지 서비스 개발 및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태화산 학술림은 침엽수 조림지와 활엽수 천연림이 어우러진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산림으로, 교육과 연구에 활용되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수상



12월 10일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제45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을 수상했다.

산림과학부 이요한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



산림과학부 이요한 교수가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REDD+ 협력 사업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인복 교수 연구팀, '호라이즌 유럽' 과제 선정



이인복 교수 연구팀이 유럽연합(EU)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이후 국내 대학 최초 사례로, 유럽과의 연구 협력 확대를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평창교육지원청 MOU 체결



1월 22일 평창캠퍼스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과 평창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평창지역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체험형 교육 강화를 위한 것으로, 농생대 목장은 연구시설을 개방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평창교육지원청은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부학술림 청소년 진로캠프



남부학술림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광양시와 협력해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 진로캠프를 운영했다. 산림과학 분야의 현장 중심 실험 · 실습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및 학술림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됐다.

농생명공학부 유경록 교수 연구팀, '이중 표적 면역치료' 플랫폼 개발

농생명공학부 유경록 교수 연구팀이 면역관문 신호와 세포 대사 경로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이중 표적 엑소좀(EV) 기반 면역치료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통해 면역관문 신호와 세포 대사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면역치료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술이 염증성 장질환(IBD)을 비롯해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제1형 당뇨병 등 다양한 T세포 기반 자가면역질환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년 퇴임교수(2026년 2월)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기 교수
(응용생명화학 전공, 농화학79)

농생명공학부 이상기 교수는 2003년 모교에 부임하여 단백질 삼차구조를 규명하는 X-선 단백질결정학을 농업미생물 및 식물체를 대상으로 하여 농업생명과학에 접목하였다. 농생대 부학장 및 서울대학교 여러 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면서 학내 행정에 참여하였으며, 학외에서도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평의원,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미국 및 유럽생화학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농업생명과학의 기초교육과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김한호 교수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농경제79)

농경제사회학부 김한호 교수는 농업자원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 농경제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농경제사회학부에서 응용무역학과 경제발전론을 전공으로 농산물 무역과 농업정책 분야의 실증 연구를 수행하며 농경제학 발전에 기여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분과위원장 등을 맡아 농업 정책 자문과 제도 개선에 참여하며 정책 현장에 기여했다.

신임교수(2026년 3월)

본교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김락우 교수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조경07)

김락우 교수는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에서 공학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서 스마트팜 환경 및 에너지시스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스마트팜의 CFD 기반 환경 해석, BES 기반 에너지 시스템 분석, 스마트팜 시설 시스템 설계, ICT 기반 스마트팜 장비 설계 및 해석이다. 한국농업기계학회, 세계농공학회(CIGR), 미국농공학회(ASABE), 세계원예학회(GREENSYS)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2026년 농식품 경영·유통 최고위과정(AAMP) 14기



서울대학교와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 경영 · 유통 최고위과정' 제14기가 3월 31일 모집을 마감하고, 4월 23일 개강해 11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모교 75-1동 202호에서 진행된다.

해당 과정은 농식품 산업을 이끌 경영자 양성을 목표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02-2077-2549, http://aamp.co.kr/)

2026년 푸드테크 최고책임자과정(FTCXO) 10기



푸드테크 분야 최고경영자 교육 과정인 '푸드테크 최고책임자과정(FTCXO)' 10기가 3월 13일 모집을 마감하고, 4월 2일 개강해 20주간 총 60시간 동안 호암교수회관에서 운영된다. 해당 과정은 푸드테크의 기술 개발부터 창업, 시장 진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문의 02-888-6178, https://foodtech.snu.ac.kr/)

상록문화재단 이사 선정 위원회 간담회



12월 17일 수요일 교수회관 6회의실에서 상록문화재단 이사 선정 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위원장은 정철영 동창회 상임부회장이 맡았으며, 간담회에서는 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2026년 새해인사회 준비를 위한 76학번 3차 회의



12월 23일 화요일 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에서 2026년 새해인사회 준비를 위한 76학번 3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세부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공연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동창회보 제110호 발행



동창회보 제110호가 2026년 1월 1일 자로 발행돼 동문들에게 발송됐다.

2026년 76학번 주관 새해인사회

1월 7일 수요일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76학번 주관 입학 50주년 기념 새해인사회가 열렸다.



행사는 1부 동창회 이사회에 이어, 2부에서는 음대 국악 트리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고, 3부에서는 샌드페블즈 공연과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상록문화재단 회계감사



1월 19일 월요일 75-1동 207호에서 상록문화재단 회계감사가 실시됐다. 이중용 감사는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음을 확인했다.

상록문화재단 제30회 이사회



1월 19일 월요일 75-1동 명예의 전당 회의실에서 상록문화재단 제30회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심의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했다.

2026년 제1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2월 4일 수요일 75-1동 명예의 전당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보 111·112·113호의 주요 원고 저자와 표지 인물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상록문화재단 1학기 장학금 수여식



2월 24일 화요일 75-1동 203호에서 상록문화재단 제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박식순 이사장은 2024년 신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 학생 10명에게 특별장학금을 수여했으며, 2026년 제1학기 장학금은 총 58명의 학생에게 약 1억 1,430만 원이 지급됐다.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1학번 1차 회의



2월 27일 금요일 파스텔시티 올리브에비뉴에서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1학번 대표자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대표와 학내대표를 선정하고, 학과별 모금액을 정했다.

2026년 전기 신입회원 등재

2026년 전기졸업생으로 학사 189명, 석사 111명, 박사 39명, 석박사통합 12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동창회 신입회원으로 등재되었다.

농생대 동창회 소식

2026년 제1회 포상위원회



3월 10일 화요일 75-1동 명예의 전당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포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정자와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후보자, 감사패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현수 제9대 동창회장에 공로패 전달



3월 25일 수요일 락구정에서 이현수 제9대 동창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해당 공로패는 2018년 동창회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창회 사무실에 보관돼 오다 이번에 전달됐다. 이날 김진모 수석부회장과 강병철 학장이 공로패를 직접 전달했다.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1학번 2차 회의



3월 27일 금요일 파스텔시티 팔진향에서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1학번 대표자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부 사회자 선출과 찬조품 협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문 동정

박은식(임학88) 제37대 산림청장 임명



2월 28일 박은식(임학88) 동문이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박 청장은 2001년 산림청에 입직해 산림산업정책국장과 차장을 역임했으며, 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특히 함양 산불 당시 현장 지휘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대통령실은 "박 청장은 산림 정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라고 밝혔다.

백승혁(농교육91) 동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이사 선임



백승혁(농교육91) 동문이 하이트진로음료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백대표는 1997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하여 20여 년간 식품영업, 영업기획, 경영관리, 브라질 법인장을 거쳤고 신화푸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천영훈(축산84) 동문 풀무원식품 대표이사 선임



12월 12일 천영훈(축산84) 동문이 풀무원식품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천 대표는 1990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노경탁(축산84) 동문 동원팜스 대표이사 선임



12월 28일 노경탁(축산84) 동문이 동원팜스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노 대표는 기능성 축산 사료 개발과 공급망 효율화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재관(농생물86) 동문 한국에너지공단 제18대 이사장 취임



1월 16일 최재관(농생물86) 동문이 한국에너지공단 제1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최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재생에너지 운동 본부 대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허민호(원예82) 코스맥스그룹 수석부회장 선임



허민호(원예82) 동문이 코스맥스 그룹 수석부회장에 임명됐다. 허 수석부회장은 CJ올리브영, CJ ENM을 거친 유통 전문가이다.

서병륜 前동창회장 관악대상 수상



3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있은 서울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대학 동창회 11대 동창회장이었던 서병륜(농공69) 로지스올 회장과 이수만(농공71)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관악대상을 수상하였다. 관악대상은 서울대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199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8회가 된다. 우리 대학 동문으로 수상자는 2015년 윤대섭(농공49) 성보실업 회장이 수상한 이후 10여 년 만의 수상이며 서병륜, 이수만 두 동문이 동시에 수상하여 다른 해와 달리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서병륜 회장은 물류산업개척으로 대한민국 물류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 공과 농생대 동창회장을 역임하며 동창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관악경제인회를 잘 이끈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을 하였으며 이수만 동문은 SM엔터테인먼트의 총괄프로듀서로 우리나라 연예산업을 세계화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서병륜 전 농생대 동창회장의 관악대상 수상 소감문

“물류 외길 50년의 여정과 꿈”



서병륜 회장 내외

오늘 귀한 관악대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물류’라는 한 우물만을 파왔습니다.

1976년 대우중공업 기계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물류 환경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며 파렛트 시스템이 국가 경제의 혈맥이 될 것임을 확신했고, 1984년 홀로서기를 시작해 한국물류협회와 로지스올(LogisALL) 그룹을 일구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8,500권이 넘는 전문 서적을 탐독하며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로지스올은 35만 기업이 함께 사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물류 인프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 **물류 혁신:** 부피를 4분의 1로 줄이는 ‘접철식 컨테이너(FOLDCON)’로 글로벌 해상 물류의 낭비를 제거하겠습니다.
- **공존공영:** AI와 결합된 ‘공유 물류 시스템(Physical Internet)’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상생하는 물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넘어 세계 물류 발전에 기여하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인력개발학 동창회 신년교례식



1월 10일 본교 201동 101호 대강당에서 '산업인력개발학 신년교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 및 재학생 8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동창회장, 원우회장, 학과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와 상호 인사, 덕담 순으로 진행됐으며, 떡 자르기와 기념촬영이 이어지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락구정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교류를 이어갔다.

임학동문회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1월 30일 본교 75-1동 203호에서 '임학동문회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행사는 1부 정기총회(2025년 경과 보고 및 결산 보고)와 2부 신년교례회(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로 진행됐다. 이후 만찬을 통해 선후배 간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조재구(임학83) 동창회장이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임학동문회 2026년 전기 학위수여식 및 동문회원증 전달식



2월 25일 본교 203동 101호에서 임학동문회가 주최한 '2026년 전기 학위수여식 및 동문회원증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교수들의 개회사와 격려사, 축사에 이어 학위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2026년 전기 졸업생 학사 15명, 석사 5명, 박사 5명에게 동문회원증이 전달됐다. 아울러 본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사 졸업자들에게는 임학동문회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행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동문 경조사(2025. 12. 1.~2026. 3. 31.)

애사

[본인상]

강원재(농기계79) 본인상 3월 20일 발인
송보현(농화학54) 본인상 12월 29일 발인
유시창(농공59) 본인상 2월 21일 발인
이기욱(농기계99) 본인상 12월 8일 발인
이성렬(농기계71) 본인상 1월 6일 발인
이흥구(축산54) 본인상 12월 20일 발인
전양(임학61) 본인상 3월 21일 발인
한명우(농학59) 본인상 2월 24일 발인
홍성각(임학58) 본인상 1월 24일 발인

[가족상]

강석남(농교육81) 빙모상 1월 12일 발인
김대식(농기계82) 모친상 2월 2일 발인
김영규(농토목82) 모친상 1월 28일 발인
김재홍(식공83) 장인상 1월 18일 발인
김진철(임학95) 모친상 12월 3일 발인
김창순(농가정75) 모친상 1월 25일 발인
김천형(식공81) 모친상 2월 24일 발인
김현명(농토목91) 부친상 1월 5일 발인
마남혁(농학77) 빙부상 12월 22일 발인
문영희(원예91) 모친상 12월 10일 발인
박경식(임학93) 빙모상 12월 27일 발인
박동우(원예83) 부친상 2월 23일 발인
박제균(식공82) 부친상 1월 30일 발인
손정태(농화학76) 부친상 2월 16일 발인
손호석(원예90) 형제상 3월 7일 발인
윤광식(농토목80) 빙모상 3월 14일 발인
윤현근(식공90) 빙모상 2월 19일 발인
윤현준(농토목04) 부친상 12월 13일 발인
이기택(농기계83) 모친상 12월 5일 발인
이병두(임학93) 부친상 3월 10일 발인
이성준(식공87) 빙모상 1월 2일 발인
이용식(임학77) 부친상 3월 19일 발인
이재근(농토목88) 부친상 1월 6일 발인
이창엽(식공76) 빙부상 3월 14일 발인
이채만(농학85) 모친상 1월 31일 발인
이태훈(식공91) 빙부상 3월 10일 발인
임상표(임학90) 모친상 2월 18일 발인
임종석(식공82) 부친상 3월 20일 발인
조영진(식공94) 빙모상 3월 24일 발인
조완일(식공88) 부친상 3월 29일 발인
최영환(식공86) 빙모상 2월 27일 발인
최원상(식공75) 모친상 3월 30일 발인
최형태(임학87) 빙부상 1월 6일 발인
한정숙(식공90) 부친상 12월 22일 발인

경사

고종필(농토목83) 장녀 결혼 2월 7일
고종필(농토목83) 장녀 결혼 2월 7일
김동엽(임학75) 자녀 결혼 12월 27일
김동욱(농기계11) 동문 결혼 12월 20일
김병철(임학75) 장남 결혼 1월 31일
김석수(농화학84) 차녀 결혼 3월 8일
남상운(농토목80) 차남 결혼 12월 21일
문인호(농생물80) 아들 결혼 2월 28일
심재용(식공87) 아들 결혼 1월 17일
이아영(바시공13) 동문 결혼 12월 7일
이종학(임학79) 장남 결혼 1월 10일
임준형(농토목87) 장남 결혼 1월 4일
최형균(식공85) 딸 결혼 1월 31일
홍석주(농기계12), 류지원(농기계17) 동문 결혼 2월 1일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에 후원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 12. 1.~2026. 3. 31.)

동창회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상록문화재단 농협 301-0068-1319-91 (예금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김홍기(농학61) 동문 '1억 원' 기부



1968년 마포구 합정동에서 신우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어언 60여 년 한길 합성수지관 사업을 일구어 온 김홍기(농학61) 동문이 2025년 연말에도 큰 기부를 해 주셨다. 동문은 2023년부터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 큰마음 덕으로 우리 재단은 재학생과 모교에 대한 후원을 잘 할 수 있었다. 우리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은 동문의 큰 뜻에 감사를 드리며 그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다.

▶ 좌측부터 강병철 학장, 김홍기 동문, 박식순 동창회장, 김진모 상임부회장

5,000만 원



박식순(농교육77)
케이에스 그룹 회장
동창회장

1,000만 원



윤희진(축산63)
㈜다비육종 대표이사

900만 원



이순형(농기계70)
㈜파워킹 대표
㈜수도이앤씨 대표

600만 원



류관희(농공6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창회 고문



박숙자(농가정62)
동창회 상임부회장



임영오(농교육78)
㈜애니텍 대표

500만 원



최윤재(축산7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창회 상임부회장



윤석용(농학74)
㈜새들만 대표

300만 원



윤혜정(임산90)
서울대학교 교수



정구민(축산 석84졸)
21세기생명과학
문화재단 소장

200만 원



고상운(임산82)
(유)에코텍코리아 대표

임수인(농기계99)
생각의 숲 원장

200만 원

농생대 76학번 장학금

민병채
前과천문인협회 회장

150만 원

김인태(임산77)
광교동문회 회장

100만 원

이선형

신희철
과천동 주민자치위원회

동창회는 회원 여러분의 정성 어린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동창회비는 동문 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을 위한 행사, 재학생 장학금 지급, 『동창회보』 발간 등에 사용됩니다.
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명단에 누락된 분은 동창회(전화: 02-880-4525 또는 문자: 010-8823-863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입 안내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동창회 임원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비 입금 시 '홍길동농공63' 식으로 본인 이름을 밝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임원					일반회원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연회비	종신회비
3,000,000원/년	300,000원/년	200,000원/년	150,000원/년	100,000원/년	30,000원/년	300,000원

회비 · 찬조금 납부자 명단(2025. 12. 1.~2026. 3. 31.)

[종신회비]

강대구(농교육79)
김성용(농경제84)
노수현(축산83)
박대호(농지도79)
박상배(바시공12)
박인탁(농생물77)
박충희(농생물84)
송지섭(잠사80)
심규섭(임산82)
안강현(농교육 박98졸)
조경식(농토목03)
조현수(농생물74)
최대범(농경제68)
최원실(임산86)
한만식(동물자원99)

[감사회비]

이중용(농공77)

[상임부회장회비]

강규석(임학84)
강영애(농가정82)
강정모(농경제65)
김종덕(농교육85)
김진모(농교육81)
노경수(농토목81)
박숙자(농가정62)
박종열(임학 석71졸)
변상지(농생물74)
송병국(농교육81)
신승철(식공80)
우건조(식공77)
이석하(농학76)
이전제(임산70)
이태근(농학78)
제상우(조경85)

[부회장회비]

강춘원(임산83)
권명구(농교육68)
김경남(원예80)
김재원(임학74)
김재환(잠사81)
김종국(농화학63)
김종대(임학72)
김태철(농공66)
박용제(임학67)
서광섭(농토목79)
신영훈(원예76)
여수진(조경87)
유위종(농경제72)
이동선(식공73)
이병식(농교육89)
이석형(원예85)
이승돈(농생물86)
이승인(농화학84)
이정호(농화학71)
이해완(농생물72)
임명미(농가정59)
임평자(농가정61)
전재헌(농기계76)
조숙자(농가정60)
지영숙(농가정59)
채제천(농학64)
최건업(농공85)
허길행(농경제65)

[상임이사회비]

김대훈(농기계86)
김성환(식공81)
김이기(농지도80)
민경택(임학88)
박문한(임학 석84졸)
박미선(산림자원97)
송인홍(농토목92)
윤종철(농생물83)
이원재(조경80)
이혜숙(식공85)
이효원(축산 석80졸)
임수인(농기계90)
임형백(농교육89)
최병하(축산81)

[이사회비]

김동환(식물생산03)
김영춘(임학77)
김형욱(농기계96)
노광택(식공92)
문정현(동물자원99)
박두산(농기계 석05졸)
박준호(임산02)
서영준(농토목93)
서주형(동물자원12)
안홍모(환경재료 석06졸)
이용권(산림자원92)
정진호(농화학91)
정회석(동물자원96)
진혜영(생태조경 석01졸)
최창규(농화학91)

[연회비]

강용신(농경제54)
고예주(작물생명20)
구외석(원예84)
김경면(동물생명 석24졸)
김관우(식공83)
김규식(농교육72)
김동현(농화학79)
김동휘(잠사70)
김래준(농화학46)
김만식(임학62)
김명권(농학81)
김병성(임학81)
김성옥(농기계82)
김승은(농화학73)
김영만(축산87)
김영은(임학76)
김용환(농교육72)
김원보(임학73)
김은수(농교육96)
김재홍(축산57)
김진군(농교육71)
김태봉(축산81)
남기윤(식공68)
남면우(농생물86)
남부현(농교육83)
박금주(농기계71)
박상만(임학65)
박선현(임학71)
박원규(축산89)
박종락(농교육86)
박창호(임학58)
박홍진(농경제67)
박희구(농학52)
배성진(농기계88)
서영기(원예70)
손호석(원예90)
신성휴(농학91)
신용석(농화학61)
신창민(응생14)
안길업(농경제81)
안윤식(축산70)
안희철(농경제68)
양안식(조경73)
양영규(농공65)
염익환(농기계78)
오유진(환경재료 석22졸)
오학영(농학56)
유광현(축산70)
유신규(임산82)
이기동(축산54)

이내증(임학63)
이백경(농학87)
이병환(농화학69)
이성규(축산74)
이순실(축산71)
이영섭(응생화98)
이영찬(농토목91)
이완상(농경제54)
이원제(임학64)
이윤환(농화학60)
이재훤(농학81)
이정환(푸드테크 석23졸)
이준원(농가정74)
이지형(농경제64)
이찬복(농생물69)
임봉주(임학65)
임채문(농경제71)
전건표(응생화17)
정강희(농생물81)
정대화(농화학49)
정여진(산림환경17)
정용찬(농공81)
정춘균(농화학94)
정현규(농교육69)
조규전(농교육79)
조규탁(농학86)
조성우(식공19)
조수경(농생물72)
주석훈(잠사79)
진종석(농학86)
차순길(농공59)
채대석(잠사61)
황철호(임학85)

[동창회 찬조금]

(2025.12.1.~2026.3.31.)

이돈구(임학65)	100,000

[상록문화재단 기부자]

(2025.12.1.~2026.3.31.)

김홍기(농학61)	100,000,000
박식순(농교육77)	50,000,000
윤희진(축산63)	10,000,000
이순형(농기계70)	9,000,000
류관희(농공63)	6,000,000
박숙자(농가정62)	6,000,000
임영오(농교육78)	6,000,000
윤석용(농학74)	5,000,000
최윤재(축산73)	5,000,000
윤혜정(임산90)	3,000,000
정구민(축산 석84졸)	3,000,000
고상운(임산82)	2,000,000
민병채	2,000,000
임수인(농기계99)	2,000,000
광교동문회	1,500,000
신희철	1,000,000
이선형	1,000,000
정진호(농화학91)	300,000
김병화(농학55)	250,000
정용찬(농토목81)	200,000
최치민(식공90)	120,000
임종덕(농생물99)	80,000
전창후(원예83)	40,000

[2026년 상록의 날 찬조금]

(괄호 안은 동기 대표)

농경제91(강진원)	5,000,000
농교육91(김태완)	3,200,000
농기계91(김종언)	5,000,000
농생물91(강태선)	6,300,209
농토목91(강성)	5,000,000
농학91(김광수)	4,300,000
농화학91(박정근)	5,300,000
식공91(박용민)	5,600,000
원예91(엄지미)	4,000,000
천연섬유91(이기훈)	3,000,000
축산91(안대봉)	3,500,000

[상록재단 동창회 지원금]

동창회보 110호 지원	6,000,000

[2026년 새해인사회 찬조금]

(2025.12.1.~2026.3.31.)

농교육76(노규식)	1,000,000
농토목76동기회	210,000
식공76(박종현)	1,800,000

[동창회보 인쇄 협찬 기업]

110호: ㈜선진

신간 소개



양태진(원예85) 『궁금한 유전상식 40가지』

농림생물자원학부 양태진 교수가 과학교양서 『궁금한 유전상식 40가지』를 펴냈다.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떠오르는 40가지 이슈를 유전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며,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내용을 풀어낸다. 일상에서 한 번쯤 품어봤을 궁금증들을 차분히 짚어가며, 유전을 한층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돕는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유전자 기초부터 건강과 질병, 유전과 사회, 생명공학까지 폭넓게 다룬다.



박고은(산림자원03) 『너도 씨앗을 품게 될 거야』

박고은(산림자원03) 동문이 어린이 교양서 『너도 씨앗을 품게 될 거야』를 펴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 생태계를 연구하는 저자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는 생태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자연 속 다양한 생명들의 이야기를 동화와 시, 그리고 칼럼 형식으로 풀어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공존의 가치를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하며,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다.



최영준(조경01) 『풍경의 언어』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최영준 교수가 『풍경의 언어』를 펴냈다. 이 책은 한국 동시대 조경 스튜디오 일곱 팀을 인터뷰 형식으로 엮은 것으로, 조경가들의 작업과 시선을 담아냈다. 각 스튜디오의 설계 과정과 작업 방식, 태도를 따라가며 조경이 어떤 접근을 통해 형성되고, 하나의 풍경으로 완성되는지를 풀어낸다. 또한 조경가라는 직업의 세계를 비추며,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푸드비즈니스랩 문정훈(농교육91) 교수팀 『푸드 트렌드(2026)』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니스랩 문정훈 교수팀이 『푸드 트렌드(2026)』를 펴냈다. 이 책은 '혼자 먹는 웰니스 식문화'를 뜻하는 신조어 '혼웰식'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내 식품 소비 흐름을 짚어내고 향후 식품업계의 제품과 서비스 기획 방향을 제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식문화의 변화를 풀어내며, 산업 전반의 흐름을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케이에스더블유

www.kswgroup.co.kr



벽지 산업을 선도하는 **벽지 전문 기업**

케이에스더블유

(주)케이에스더블유의 4개의 브랜드
DID벽지·KS벽지·제일벽지·코스모스벽지가
한층 다양한 제품과 높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did 사람을 생각하는 명품 벽지 디아이디벽지

대한민국 대표벽지 KS벽지

제일 좋은 벽지 제일벽지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벽지 코스모스벽지